

#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10  
통합 의료원보 Vol.02



# 계절이 무심한 것인가 내가 계절에 무심한 것인가

오랫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고목 뒤에 숨어  
그리움을 쌓아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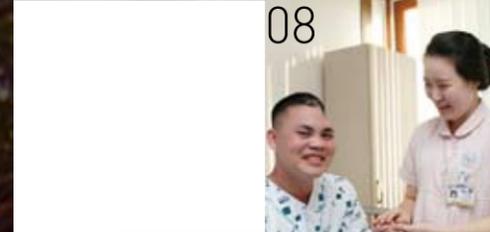
그리움의 무게는 어느덧  
빨강고 노랑게 다가오고 있었다.

계절이 나를 두고 홀로 가을로 익어버린 것이다.  
이제 든든한 나의 고목은  
어제의 기억들을 해집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있었다.  
찬란한 가을빛으로...

글 백승주



04



08



12



22



34



36



38



42

Photo Essay 계절이 무심한 것인가 내가 무심한 것인가

02 Opinion Column 추미애 의원 "병원 공동체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 되기를"

## FEATURE

- 04 Theme 01 장기 이식 허브 병원 부천병원
- 08 Theme 02 두개골 골절된 베트남 청년의 구미병원 투병기
- 12 Theme 03 방사선 치료의 선봉에 선 '노발리스티엑스'
- 16 Issue Theme 01 서울병원, 무수혈 2천례 대기록
- 18 Issue Theme 02 순천향,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참여

## CONFIDENCE

- 20 History 항설에게 순천향의 길을 다시 묻는 까닭
- 22 Field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의 24시
- 26 New Medicine1 간의 하수구 담도, 직접 보면서 치료한다
- 28 New Medicine2 선천성 오목가슴·새가슴 교정 치료법
- 30 Doctor 근로자와 농민의 '대의' 김진석 교수
- 32 Knowledge 만성 자가 면역 질환 '루프스'
- 33 Medical Column 비틀거리는 연말 모임, 이제는 변해야 한다

## COMMUNION

- 34 People 배우 안성기 "영화는 즐거움이며 도전 그 자체"
- 36 Doctor Recipe 아기 받는 남자의 아주 특별한 레시피
- 38 Travel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북한산 우이령 길
- 40 Trend 스마트폰은 '생명의 단말기'
- 42 World Class 황제의 자동차 롤스로이스
- 44 Book <체크리스트>
- 45 Movie / Stage 뮤지컬 <영웅>

## COMMUNICATION

- 46 News
- 52 Schedule
- 54 Letter of Thanks

# CONTENTS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지  
순천향 가족의  
사랑이 환우들을  
따뜻하게 감싸기  
를 바라는 마음.

# “건강한 병원 공동체 만드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한가족 같은 병원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 의사, 간호사, 병원관계자 등 여러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먼저,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통합의료원보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의료원보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대화와 소통의 시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및 의견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따뜻한 마음의 소통과 용기 있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공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 병원보가 창간을 맞이해 무엇보다도 환자 및 가족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병원 안에서 피어나는 투병의 용기와 따뜻한 사랑을 온 사회로 퍼져나가게 하는 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저명한 행복 전도사가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인한 자살로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원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병마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체의 고통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인간에게 있어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불안을 불러오게 합니다. 소외, 가난 등 사회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노력을 통해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지만, 신체의 고통과 생명에 대한 불안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한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개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이어야 합니다.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위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먼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함께 하는 병원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 의사, 간호사, 병원관계자 등 여러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병원 공동체 속에서, 환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정당한 평가와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등 꼭 필요하지만 만 경제적 이유로 기피되는 과목의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보다 따뜻한 병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병원 내 학교'나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완화의료 병상 확대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이나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가족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병원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범적인 병원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서울·부천·천안·구미 병원의 환자 및 병원 가족과 지역 사회를 하나로 잇고 소통하며 협력을 지향하는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통합의료원보의 역할에 큰 기대를 겁니다.

추운 겨울에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생명 사랑의 정신으로 환자 치료에 수고가 많으신 순천향대병원 관계자 및 그 가족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추미애





장기 이식 수술 장면.

# 영원히 사는 ‘장기 기증’ 그 중심에 부천병원이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사자 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아...간 이식 부문 국내 10위권 형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지난 10월 뇌사자 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장기 기증에서부터 적출과 이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간 이식 부분에서도 국내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천병원의 저력을 알아보자.

글\_ 한정현 사진\_ 신봉재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 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 주일 혈액 정화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 로버트 테스트의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중에서 -

### 분초를 다투는 생명 살리기의 현장

아침 일찍 장기이식코디네이터에게 긴급전화가 걸려왔다. 전북대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했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간이식 대기자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증자의 심장이 곧 멎을 것 같다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적출의사, 적출 보조의, 조직관류 담당자,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 5명은 서둘러 광명역에서 KTX를 탔다. 뇌사자의 간을 적출해 부천병원으로 돌아오자 간 이식을 받을 환자는 수술실에서 간이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초를 다투며 긴박하게 적출해 온 기증자의 간은 간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전국의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그리고 각 뇌사자 관리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통해 이식업무를 처리한다. 잠재 뇌사자의 뇌사여부를 판정하고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은 뇌사자 관리기관이며,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 이식대기자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최종 선정하여 이식 의료기관으로 연락을 한다.

### 난이도 높은 간 이식을 선두로 높은 기술 보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하 부천병원)은 지난 10월 뇌사자 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장기 기증에 해당하는 잠재 뇌사자를 다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장기 기증에서부터 적출과 이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병원은 신장 하나와 각막은 기증을 원할 시에 우선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

장기 이식은 크게 뇌사자의 장기 이식과 생체 장기 이식으로 나뉜다. 장기 기증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성해 장기 기증이 활발한 유럽의 경우에는 뇌사자 기증이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생체 기증이 훨씬 많다. 지난해 국내 뇌사자의 장기 기증 건수는 2백61건에 불

### ○ 미니 인터뷰

김민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기 이식 및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교수

“지역 사회의 장기 기증 활성화에 앞장설 것”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잠재 뇌사자의 뇌사 판정과 장기 적출 및 이식 업무를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본원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하 부천병원) 장기 이식 및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의 교수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부천병원이 더욱 능동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장기 기증과 이식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병원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해 이식 수술 잘하는 병원에서 모든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심장 이식 수술이 장기이식술의 꽃이었지만 현재는 간 이식이 이식 수술의 수준을 가르는 척도가 되고 있으며, 부천병원은 10년 남짓의 짧은 기간임에도 활발하게 간이식을 진행하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이식 수요자는 2만 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이식이 가능한 뇌사자의 1%에서만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최요삼 복서 등 유명인의 장기 기증이 있을 때

만 기증 열기가 반짝할 것이 아니라 잠재 기증자를 발굴하고 원활하게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으며, 부천병원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장기 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욱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특히 타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천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김위원장은 부천병원에서의 장기 이식 수술이 더욱 활성화되어 만성 신부전 환자와 간 이식 대기자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많은 중증 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과한 실정이다. 부천병원은 장기 이식 수술 중에서도 특히 간 이식에서만큼은 전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외과의 김형철 교수와 최규성 교수는 “간 이식은 혈관 봉합술과 면역학, 마취 기술 등 종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부천병원은 간 이식 수술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병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병원의 간 이식팀은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끝을 보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김형철 교수는 “간 이식의 절반가량은 간암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말기 간 부전이면 황달이 끼며 죽는 병이었지만 지금은 간 이식을 통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은 상태가 극히 악화된 말기 환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천병원은 간 이식 성공률에서도 90%에 달할 정도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뇌사자 의무 신고제로 장기 이식 수술 급증 예상**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자에 비해 장기 이식 대기자의 수가 많아 장기 이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로 인해 해외 원정 이식을 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 이식 대기자 수요는 2000년 5천3백43명에서 2003년 9천6백19명, 2009년 1만7천5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장기 기증자의 수는 2000년 2백33명에서 2003년 2백85명, 2009년 1천1백35명으로 느는데 그쳐 전체 대기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기별로 이식받은 환자들의 대기 시간은 신장 1천5백97일, 간장 2백44일, 췌장 8백23일, 췌도 20일, 심장 1백9일, 폐장 1백6일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잠재 뇌사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뇌사자의 기증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기증 운동 확산의 허브 된다**

이에 따라 부천병원은 앞으로 장기이식센터 주관 하에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기획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전담 의료인을 육성하고 장기 이식과 연관이 있는 직원부터 점차 전 직원으로 교육을 확대하며, 본원 방문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뇌사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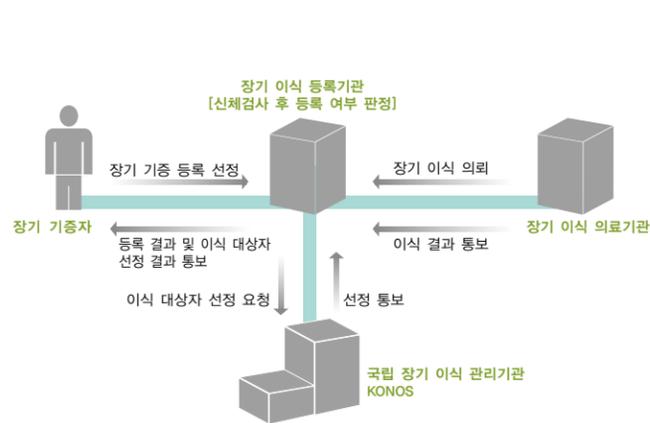


부천병원 간 이식팀. 장기 이식은 많은 과들의 적극적 협업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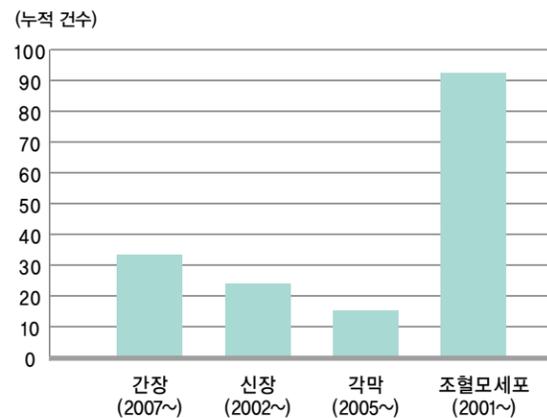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모녀.

**장기 기증 절차**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기 이식 현황**



**박순영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장기 이식은 가장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



박순영 간호사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로서 이식에 참여하는 수십 명의 의료인들이 하나가 되어 새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명의 뇌사자가 발생하면 여러 명이 이식을 받게 되므로 거의 모든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간호사는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던 7년 전부터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로 겸임 발령된 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굳은 일을 마다않고 많은 역할을 했으며, 3년 전부터는 간 이식이 많아져 전임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새 생명을 선물받는 순간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가장 설레는 뿌듯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진행할 때에는 저 역시 가슴이 설렙니다. 이식만 하면 살 수 있는 분들이 기증자가 없어 돌아가시면 너무나 아쉽고, 반대로 이식을 받은 후 건강하고 활기 찬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엄마에게 간을 기증한 이지윤씨**

“엄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이지윤씨(21)는 6년간 간경화로 고생하는 엄마에게 간을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대학교 2학년을 휴학했다. 전업주부로 53년을 살아온 엄마 기향도씨는 6년 전 갑자기 복수가 차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한 달 걸려 한 번씩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에 결국 지난 8월에는 간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빠도 없는데 엄마는 이식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이 내가 하겠다고 했죠.” 이씨는 자신의 간 60%를 떼어 엄마에게 줄 예정이다. 워낙 적극적으로 활달해 수술을 앞두고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 주었다. “간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해요. 기분이요? 좋죠.”

# 그의 간절한 한마디 “나, 공장 일하러 가야 해”

두개골 부상 베트남 청년, 인간 사랑을 실천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감사

토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2천만 원을 들여 2년 동안 기다려 한국 취업 비자를 받았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했던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이국땅에서 머리를 다쳐 기억까지 가물가물해진 베트남 청년 토안.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코리아드림을 다시 꿈꾼다.

글\_ 한정현 사진\_ 신봉재



토안을 정성으로 돌본 신경외과 김성호 교수와 토안 아버지.



사고 나기 전 건강했던 토안씨.



토안을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김영빈 간호사.



**베**트남 청년 토안(28·Mai Van Toan)씨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하 구미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것은 지난 7월 7일 늦은 저녁 무렵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토안이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와 충돌해 발생된 큰 사고 때문이었다.

두개골과 두개저 및 안면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로 뇌의 절반가량이 심한 압박으로 함몰된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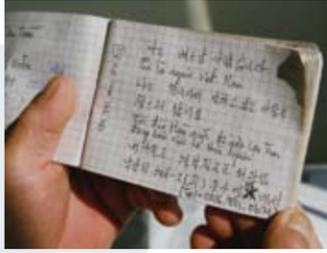
구미병원 의료진은 한국에 친고자도 없는 외국인을 살리기 위해 흔히 필요한 절차도 생략하고 즉시 두개골을 절제하는 수술을 단행하여 귀중한 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아들 소식을 듣고 한국에 달려온 아버지 마이 반 데(59·Mai Van De)씨는 병상에 누운 아들의 기형적 모습을 보고 역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다. 아버지 마이 반 데씨는 그나마 구미병원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연고도 없는 아들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생명을 구해준 것에 고마워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베트남에 돌아가도 구미병원 의료진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힌다.

“일하러 갈 거야.” “나, 공장 일하러 가야 해.” 중환자실이 또 한바탕 소란해졌다. 두개골 골절로 왼쪽 머리가 움푹 들어간 채로 토안씨가 간호사를 뿌리치며 뛰쳐나가려 한다. 일반병동으로 옮긴 지금이야 많이 안정되었지만 3개월 전에는 가끔씩 있었던 일이다.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의 70%가량이 가물가물한 토안. 그에게 남아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억은 무엇일까. 고향도 부모도 누이도 아니었다. 토안에겐 일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절박한 듯했다. 구미병원의 인간 사랑 의술이 토안의 간절한 꿈을 이루게 할 것이다.

### 고향에 있는 가족보다 일이 더욱 절박한 베트남 청년

“토안, 어떤 회사에서 일했어요?” “자동차, 차인데 여러 가지야. 다 했어.” “옷감 만드는 데서 일했던 거 아냐?” “그거 했어.” 토안 씨는 사고 나기 전 1년가량 구미와 대구 사이에 있는 왜관의 한 직물공장에서 일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는 있지만 그의 기억 중 상당부분이 부정확했고 지적하면 어물쩍 넘어가곤 했다. “왜 사고 났지?” “어떤 차가 나를 친 것 같아.” 토안은 뭘 타고 갔냐고 물으니 오토바이라는 단어를 얼른 생각하지 못한

토안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구미병원을 찾을 때 갖고 온 메모지.



옆 병실에 있는 베트남 동료 환자와 함께.

다. 조심스럽게 뒤에 태웠던 여자 친구에 대해 물어보자 “안 와, 아마 많이 아플 거야”라고 중얼거리듯 말한다. 옆 병실의 베트남 친구가 “결혼했던 사람이라 아마 안 올 거야”라고 말했다. 토안이 입원해 있는 동안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으로 많은 일들이 맺히고 풀렸으리라.

### 다문화 환자 통역 지원 절실

중환자실에 있을 당시 토안을 담당했던 이현숙 수간호사는 “베트남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3년간을 살았다고 하지만 사고 때문인지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요. 신경외과에서는 시간대별로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데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상태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가끔씩 오는 같은 회사에 있었던 베트남 동료의 통역도 부정확해 애를 많이 먹었죠.” 의사소통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해법은 의외로 시청민원실에서 나왔다. 구미시청의 다문화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1577-1366)를 통해 통역봉사를 해 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통역봉사자는 한국에서 16년간 생활한 박세란씨.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오며 귀화한 뒤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과 봉사를 하고 있었다. 박세란씨는 토안이 수술을 받은 뒤 한 달이 채 못됐을 당시 토안을 처음 봤다. 그 당시는 토안이 가장 심각한 고비를 넘기고 있던 시기였다.

### “내 손이 왜 이리 작아?”

“처음 봤을 때 토안은 울기만 했어요. 내 손이 왜 이리 작아. 발도 작아. 나 축구선수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며 한없이 울었어요.” 뇌수술을 받은 뒤 시지각과 인지능력이 부조화를 보였던 듯하다.

이에 토안의 아버지 마이 반 데 씨는 “축구선수를 했던 건 아니고 축구를 참 좋아하긴 했다”라고 정정했다. “집에 있을 때도 5시만 되면 축구한다며 나갔어요. 집안일이 끝나야 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도 잘 도와주고 축구도 열심히 했었죠.”

“베트남 남자들은 집안일을 잘 거들어 준다”라며 통역을 하던 박씨가 거든다. 토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2천만 원을 내고 2년 동안 기다려 한국 취업 비자를 받았다. 토안 아버지는 “토안은 어떻게든 돈을 벌 생각만 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일반병실로 옮긴 토안에겐 다행히 옆 병실에 베트남 친구가 있었다. 산업재해로 입원한 그 친구는 흰칠한 얼굴에 성격도 쾌활해 토안의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다. 

## ○ 미니 인터뷰

### 토안씨 담당의 김성호 교수

## “머리 수술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정”

“토안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온 건 지난 7월 7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혼수상태인데 다 출혈이 많아 응급치료를 했죠.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인데 친고자도 없어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긴 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단 수술을 한 거죠.” 오��바이를 타고 가던 토안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두개골과 두개저 및 안면 골절상을 입어 뇌의 절반기량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3시간 40분에 걸쳐 혼수상태에 빠진 토안의 두개골을 절제하는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술했다.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부위든 손상되면 부어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뇌는 탄력이 없는 딱딱한 두개골이 덮고 있기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면 뇌가 짓눌려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개골 일부를 떼어냈다가 일정시간 지난 뒤 다시 붙이는 두개골 성형수술을 합니다. 대부분의 머리 수술은 환자에게 위험하지만 난이도 자체가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는 왼쪽 머리가 움푹 들어간 채 두개골 결손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머리뼈의 일부가 없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걸까?

“강한 충격을 주면 안되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세계 누르면 통증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안은 현재 3개월 이후에 있을 두개골 성형수술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 후에는 머리 모양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초기에는 보호자도 없고 말이 안 통해 불안했기 때문인지 병원에서 면도칼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바로 진정되곤 하는 걸 보면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오시기 전엔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볼 때마다 인사하고 예의가 무척 좋아요. 큰 사고를 당해 속이 많이 상했겠지만 토안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 토안의 아버지 마이 반 데(Mai Van De)씨

## “아들 살려준 선생님들이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채소 키우고 돼지 팔아 자식 키웠는데...”

병원 등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만 해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좀체 표정이 풀리지 않는 아들을 다독이던 아버지 마이 반 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도 안 통하는 아들을 잘 치료해 살려준 구미병원 선생님들이 정말 고마워요, 베트남 돌아가서도 잊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코리아’로 보낸 뒤 3년 만에 난생 처음 한국에 왔다. 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뒤 비자 수속을 밟기까지 마음은 급한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마지막에는 브로커에게 4천만 동(4백만 원가량)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베트남에선 이렇게 브로커에게 속아 정상 가격의 3~5배씩 비용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왜관 공장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만을 들고 인천공항에서 물어 물어 공장을 찾아갔고, 공장 직원과 함께 중환자실로 왔다. 아들을 부둥켜안고 울었다. 토안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토안이 사고 난 지 한 달 반이 지난 8월 중순이었다.

마이 반 데씨 가족은 베트남의 중부지방 탕화이라는 곳에서 2천 평가량 채소 농사를 지으며 돼지고기를 파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태풍 피해가 극심한 탕화이에는 변변한 공장도 없고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농사를 모두 망치기로 유명한 가난한 지역이다. 자녀는 딸 셋, 아들 둘. 스물세 살인 막내딸까지 모두 시집을 보냈다. 열아홉 살인 막내아들은 형 따라 한국에 올 준비를 하고 있다.



# 부작용과 한계 넘어 암치료의 '주연'이 되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방사선 치료법과 기기들, 그리고 노발리스티엑스

원인을 몰라 예방법도 없고, 확실한 전조 증상도 없다보니 늘 발견도 늦어 생명을 위협하는 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암 치료법이 해마다 많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주된 암 치료법은 수술, 그리고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을 꼽는다. 그중 방사선 치료의 진화는 눈부시다. 방사선 치료법의 현주소로 안내한다.

글\_ 여승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건** 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이다. 그러나 건강 장수까지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있다. 대표적인 난치병인 암이 바로 그것으로,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평생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이다. 유능한 전 세계 의학자들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원인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적이다. 원인을 몰라 예방법도 없고, 확실한 전조 증상도 없다보니 늘 발견도 늦어 생명을 위협하는 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암 치료법이 해마다 많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주된 암 치료법은 수술, 그리고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을 꼽는다.

## 암 치료의 주연으로 등극한 '방사선 치료'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는 과학기술이 의학에 들어왔다. 그래서 요즘 무엇보다 방사선 치료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전에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방사선 치료 방법들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인데, 항상 뒷줄에 섰던 방사선 치료가 이제 전면에서 암을 잡는 시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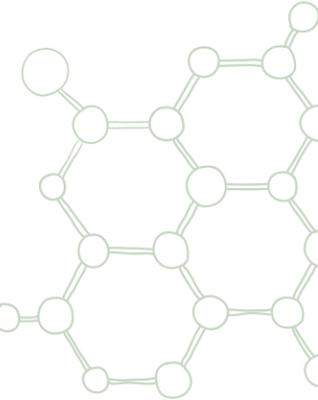
고에너지 방사선을 신체에 쏘이는 방법으로 암을 제거하는 방사선 치료는 그동안 정밀하지 못한 방사선 조사로 인해 정상 조직도 방사선 조사로 피해를 입고, 또 복잡한 구조에 위치한 암은 치료하지 못하는 부작용과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치료기기의 획기적인 진화로 부작용과 한계점이 싹 해결됨에 따라 이제 방사선 치료는 암 치료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된 것이다. 최근 언론에는 큰 병원들의 방사선 치료기 도입에 대한 보도가 잦다. 4차원, 3세대, 최첨단, 초정밀, 다기능 등 현란한 문구로 장식된 기기들이 전국 대학병원들에 속속 입성하고 있는 것이다. 노발리스티엑스, 사이버나이프, 래피드아크, 토모테라피. 이들 치료기기의 등장으로 방사선 치료법은 급속히 진화했다.

## 3D CRT ▶ IMRT ▶ IGRT ▶ VMAT

방사선 치료법의 첫 진화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선형 가속기가 개발되면서 신호탄을 올렸으며, 곧 이어 선형 가속기에 CT와 MRI가 접목되면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3D CRT)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 진화. 3D CRT로 정상 조직을 보호하면서도 암에 쏘이는 방사선량이 증가됨에 따라 부작용 발생률이 낮아지고 암 치료 성공률은 높아졌다. 하지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IMRT)의 등장으로 3D CRT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세 번째 진화의 산물 IMRT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다엽 콜리메이터를 이용해 암에는 최고 선량의 방사선을, 정상 조직에는 최저선량의 방사선이 쏘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3D CRT보다 정상 조직은 더 보호하면서 더 정밀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기술인 것이다. IMRT도 한계가 있다. 치료 중에 호흡이나 환자의 자세 움직임으로 암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정하기 힘들다는 것. 네 번째 진화가 이뤄지면서 그 한계 역시 무너졌다. 영상 추적 방사선 치료(IGRT)가 등장한 것이다. 움직이는 암을 미사일처럼 찾아다니며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진화의 주인공은 체적 회전 치료(VMAT)이다. VMAT는 현재 가장 이상적인 방사선 조사 분포를 구현하는 치료 기술이다. 회전 치료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몸을 360° 돌면서 아무리 복잡한 모양의 암이라도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한다.

## 방사선으로 수술도 한다

방사선 치료 기기로는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수술도 시행할 수 있다. 칼로 잘라내는 대신 방사선을 쏘여 수술 치료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장 앞선 수술이 가능한 기기는 사이버나이프. 선형 가속기를 소형·경량화해 로봇 팔에 장착시켰고, 또 최첨단 영상 유도 시스템을 갖춘 사이버나이프는 병변과 환자의 작은 움직임까지 고려해 실시간으로 추적해 로봇이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한다. 1천2백 개 이상의 방향에서 방사





선 조사가 가능하다. 외과적 수술과 달리 통증도 없고, 입원할 필요도 없다.

**과학기술의 총아 '노발리스티엑스'**

가장 앞선 방사선 치료법인 VMAT, 그리고 최상의 방사선 수술을 모두 수행하는, 그것도 가장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가장 강력한 다기능 방사선 치료기기가 있다. 노발리스티엑스(Novalis TX)이다. 사이버나이프와 래피드아크가 결합된 세계 최고의 방사선 치료기이다. 노발리스티엑스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강점은 다양하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최고 성능의 기기 노발리스티엑스를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도입했다. 이로써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서울 이남 지역에서는 최고의 암 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노발리스티엑스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강점들**

**✦ 다기능 방사선 치료기**

노발리스 티엑스는 토모테라피, 사이버 나이프, 래피드 아크가 구현하는 3D CRT, IMRT, IGRT, SRS, SRT, VMAT 등 최상의 치료 기술을 모두 시행하는, 그야말로 최상의 스마트한 방사선치료기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발리스 티엑스는 전신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을 치료한다. 뇌신경 종양, 악성 뇌종양, 뇌전이암 등 머리에서 발생하는 암과 두경부, 척추, 간, 폐 등 신체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치료기다. 게다가 동정맥 기형, 각종 혈관종, 파킨슨씨병과 같은 기능성 뇌질환도 효과적으로 치료해낸다.

**✦ '2.5mm' 가장 높은 정밀도**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1백20개의 다엽 콜리메이터(MLC)가 장착되어 있어 방사선을 2.5mm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암도 정확히 치료가 가능하다. 정밀도는 암 부위에 대한 방사선 집중 능력인데, 수치가 높을수록 주변 정상 조직의 피해가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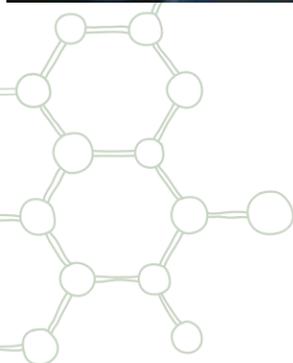
노발리스 티엑스	래피드아크	토모테라피	사이버나이프
2.5mm	5mm	6.25mm	4mm

**✦ 최적의 환자 맞춤형 정위 방사선 수술**

피부 절개나 출혈이 없는 방사선 수술이며, 작은 암세포까지 찾아내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 머리에 특수한 프레임틀을 쓴 후 하는 치료이다. 노발리스티엑스는 광범위한 질환을 대상으로 최적의 환자 맞춤형 정위 방사선 수술을 제공한다. 당일 치료가 가능해 입원 없이, 수술 후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

종래의 치료 방법들에 비해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도, 환자가 받는 전체 방사선량과



소음을 각각 50% 이상 감소시켜 더 안전해졌다. 또 기존 세기 변조 혹은 영상 추적 방사선 치료에서 소요되는 20여 분 이상의 치료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해 환자분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 1시간 넘게 고정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고통이 사라진 것이다.

**✦ 4차원 실시간 호흡 관리 시스템 장착**

치료 중 환자의 불규칙한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어 호흡으로 인한 방사선 조사의 오류도 해결되었다. 따라서 폐암이나 간암 등 움직이는 종양을 추적할 수 있어서 종양에 최대 선량을 집중하고, 주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 세계 최초 6차원 로봇 카우치 장착**

환자의 환부를 가장 정확한 위치로 고정하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영상을 통해 재확인할 수가 있다. 또 자동으로 치료 자세를 잡아주고, 치료 중 종양 위치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노발리스티엑스가 '최적'의 명의를 만나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노발리스티엑스 암치료센터'에는 세계 최고의 방사선 치료기 '노발리스티엑스'를 운용하는 국내외에서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 명의 명의가 있다.

**방사선 수술 : 배학근 교수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뇌종양·안면신경통·소아 선천성 기형 등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고, 특히 뇌내출혈(뇌졸중)과 신경해부학에 관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가진 뇌신경외과의 베테랑 교수이다. 학회에서도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과 장애평가기준개발 위원장,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노발리스티엑스의 큰 기능인 방사선 수술을 담당하는 천안병원 배교수의 존재는 환자들에게는 큰 행운이다.

**방사선 치료 : 김은석, 여승구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김은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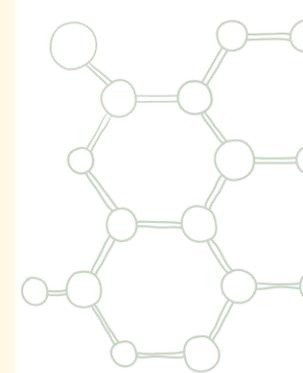


여승구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교수인 김은석 교수는 1999년 부임해 12년째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김교수를 찾는 암환자는 연간 5백여 명. 교수 1인 진료 실적으로는 지역 최다 인원이다.

여승구 교수는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에서 최신 방사선 치료의 임상 경험을 습득하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 여교수는 그동안 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우수 논문만을 게재하는 SCI 저널, 'Clinical Cancer Research'에 논문을 등재시키는 등 실력 있는

교수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암학술재단 학술상'을 수상했고, 올해 영국 세계 인명 센터(IBC) TOP 100 의료 전문가로 선정되었고, 2011~2012년판 미국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등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수혈 뇌종양 수술 모습.

# 수혈 부작용 걱정 끝! 무수혈 치료, '순천향'이 선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무수혈센터, 센터 개소 10주년 맞아 무수혈 수술 2천 레 대기록

간염이나 에이즈 같은 혈액 전파 감염을 줄이고 신체 면역력을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과 의학적 가치가 높은 무수혈 치료를 선도하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11월 16일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및 무수혈 수술 2천 레 돌파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무수혈센터의 자료를 통해 무수혈 치료를 조명했다.

정리\_ 편집부

**현** 대 의학에서 수혈은 당연한 치료 과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수혈로 인한 부작용과 혈액 수급 및 관리 등에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무수혈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수혈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10여 개를 넘어섰고 치료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서울병원)은 2000년부터 무수혈센터를 개소해 우리나라의 무수혈 치료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누적 수술 건수도 2천 레를 훌쩍 넘어섰다.

## 각종 암 수술에서 무수혈 치료 활발해

전주에 사는 박중훈씨(54세·가명)는 지난 4월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담낭에서 3cm의 혹을 발견해 수술 일정을 잡았으나 수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박씨는 서울병원에 무수혈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아가 전담간호사가 일사천리로 해결해 입원 다음날 응급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이 발견됐다. 일주일 후에 다시 받은 담낭암 수술은 전이를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담낭 주변의 장기 조직 일부를 절제하고 이어주는 대수술이었다. 외과 최동호 교수의 집도로 2차 수술도 수혈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서울병원 무수혈센터에서는 박중훈씨와 같은 담낭암 수술을 비롯해 출혈 위험이 높은 췌십이지장 절제술, 세쌍둥이 제왕절개 분만, 척추 교정술, 인공 관절 치환술, 심혈관계 수술,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 대부분의 수술이 무수혈로 이뤄진다.

1997년 첫 무수혈 수술을 시작한 서울병원은 2010년 10월까지 총 2천97례의 수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 10건, 2000년 76건, 2001년 1백34건, 2003년 1백52건, 2006년 2백5건, 2008년 2백94건의 무수혈 수술이 이뤄져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환별로는 부인과 양성 종양 등의 수술이 3백67례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과 수술 2백69례, 제왕절개 분만 1백81례, 인공 관절 치환술 및 관절경 수술 1백44례, 골격계 골절 교정술 1백40례, 척추 수술 1백23례, 뇌혈관 및 뇌신경계 수술 86례, 비인후두계 수술 77례, 안과 수술 48례, 심혈관계 수술 26례 등이었다. 특히 각종 암 수술에서 무수혈 치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94례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유방암 수술을 비롯해 대장·직장암 89례, 식도·위·십이지장암 수술 61례, 갑상선암 55례, 간담췌암 45례, 부인과 종양 33례, 호흡기 계통 암 수술 9건, 뇌종양 수술 8건, 비뇨기암 7건 등으로 모든 영역에서 무수혈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 혈액 전파 감염 줄이고, 신체 면역력 보호

서울병원 무수혈센터 박유진 코디네이터는 “산부인과·외과 수술은 물론, 출혈량이 1천cc가 넘었던 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의 여러 수술에서 혈액이나 혈액 관련 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 혈액 회수기 등 무수혈 장비와 조혈제, 철분 제제를 이용한 대체 요법으로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센터 개소 전인 1996년부터 시작해 1998년 20명, 2000년 1백66명, 2003년 3백78명, 2006년 6백23명, 2008년 8백2명 등 총 5천5백51명의 입원 환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에서 보듯이 무수혈 치료가 주목받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수혈로 인한 부작용, 즉 B형·C형 간염이나 에이즈 등 혈액 전파 감염을 줄이고, 신체 면역력을 보호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헌혈의 감소와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염 혈액 문제, 국내에서 헌혈된 혈액의 검사와 유통 과정의 안정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수혈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서울병원 무수혈센터는 센터장인 흉부외과 염욱 교수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진료지원팀, 코디네이터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교적인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염욱 교수(흉부외과), 중앙혈액내과 이상철, 마취통증 의학과 옥서영, 산부인과 이정재·차상현, 신경외과 조성진, 비뇨기과 송운섭, 외과 최동호, 정형외과 이재철, 진단검사의학과 신정원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3년 6월부터 무수혈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흉부외과 염욱 교수는 2005년 공식 출범한 수혈 대체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해, 현재까지 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무수혈 치료는 조혈제와 지혈제, 혈량 증량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수술 중에는 혈액 회수법과 혈액 희석법 등을 이용해 혈액이나 혈액 제제의 사용을 매우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수술 전·후에는 조혈제와 철분제를 투여해 적혈구 혈액 생성을 촉진, 빈혈을 교정함으로써 수술 후 출혈에 의한 빈혈에 대비한다. 수술 중에는 셀 세이버라는 자가 혈액 회수기를 사용, 출혈되어 버려지는 혈액을 걸러서 환자에게 다시 투여한다. 환자의 체내 혈액을 혈량 증량제로 희석시킨 뒤 수술을 시행, 수술 중 출혈되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출혈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적용한다.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 모습.

#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 사업 적극 참여한다

학교법인 동은학원 - 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 · 교육 · 정보통신분야 협약 맺어...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모자보건사업도 지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개발도상국들의 의료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 협조 약정을 맺었는데, 이로써 개발도상국의 의료 분야에 대한 대외 무상 개발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이 벌이는 '인간 사랑'의 봉사 활동이 국제 사회로 확산되는 모습을 알아보았다.  
정리\_ 편집부



개도국 무상 개발 협력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왼쪽)과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이사장.



업무협약 조인식.

**학** 교법인 동은학원(이사장 서교일)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은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3층 간부 회의실에서 개도국 무상 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에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이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의 역량 강화 사업인 프로젝트 관리 운영자(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용역 수주에 따라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시엠립 주립병원 내 모자병동 신축과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사업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지역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과 산모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의 모성과 유아의 건강 증진을 돕게 된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각종 국제협력 사업 중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교육·

정보통신 및 의료정보 시스템 분야에 대한 대외 무상 개발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도국의 보건의료·교육·정보통신 및 의료정보 시스템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또는 위탁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초청 연수 및 현지 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 조사 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 무상 기술협력 사업의 발굴과 시행 및 평가를 지원한다. 또한 국내의 조직망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양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 및 활동 홍보와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상호 활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공적 개발 원조의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 무한한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힘과 역량을 발휘해 한국국제협력단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

조했다.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역시 “보건의료 분야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데 오늘 약정을 통해 보건 의료 및 교육 분야의 양 기관 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협력 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간 전문가 파견이나 연수 사업에서 협력해온 동은학원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개도국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증진하고 빈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하면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상호 교류 및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외 공적 원조의 절대 액수를 국가 위상에 맞도록 증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국제협력단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간사랑봉사회 통한 의료봉사활동도 활발**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순천향대학교와 중앙의료원 산하에 서울·부천·천안·구미 4개의 대학병원과 동화산업, 동은 IT 등 2개의 수익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인간 사랑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순천향대학교는 '인간사랑봉사회'라는 자원봉사 모임을 결성하고 각 병원별 의료봉사단을 통해 정기적인 의료봉사 활동은 물론 대학의 피닉스봉사단을 통해 국내에서 소외받기 쉬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부천병원 봉사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한감봉사회는 9년째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일반 환자는 물론 심장병 무료 수술, 결핵 퇴치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포남펜 의과대학과 협약을 맺고 캄보디아 의사들을 초청해 무료 연수를 진행, 선진 의학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다. 30여 명에 이르는 이들 캄보디아 의사들이 순천향동문회를 결성해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향설’에게 순천향의 길을 다시 묻는 까닭은...

교육 위기의 시대이다.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 개발이 대학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한 지금, 순천향대학교 설립자인 서석조 박사의 교육 이념을 떠올리는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존재의 정체성은 그 지나온 역사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이다. 체계적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큰 꿈을 선택한 실천적 지식인에게서 순천향이 얻어야 할 위기 극복의 지혜는 무엇일까? 순천향대학교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삶과 철학을 연재하면서 이 글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순천향인’이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의 지표와 현명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

정리\_ 편집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천향의과대학 제1회 신입생  
환영회(1978년 3월 5일),  
세브란스병원 재직(1955 ~  
1960년) 당시 서석조 박사의 강  
의 모습(학생들 사이에서 명강의  
로 유명했다).  
성모병원 재직(1960 ~ 1964년)  
당시 내과 교직원들과 동구릉에  
서 आयुर्वेद(뒷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고 향설 서석조 박사.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H.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현재에도 살아있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 인간이 과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설 서석조 박사가 아니었다면 순천향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순천향 성장의 모든 동력은 그의 철학과 열정으로부터 분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향설 박사의 의미를 자주 잊는다.

그동안 순천향은 안팎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학 당시에 비할 수 없는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혼돈의 상황 속에서 홀로 도전과 실험의 역사를 시작한 설립자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에 비해 여전히 작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 거대한 기대권을 쥐고 있는 대학들도 성장의 한계를 직감하고 있다. 양적 성장 일변도의 단순 경쟁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대학’ 순천향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스런 상황이지만 어쩌면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 순천향의 비상 위한 새로운 모색, ‘뿌리 찾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들이 여전히 성장과 경쟁 일변도의 현실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온전한 대학 정신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의 개발이야말로 대학이 추구해야 할 경쟁력의 기본이요 핵심이다.

향설 서석조 박사는 일찍이 대학 교육의 실용성과 함께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한 교육자였다. 그는 개인적 영달을 버리고 체계적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큰 꿈을 선택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초라한 교육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지혜를 서석조 박사에게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 찾이란 곧 순천향의 비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다.

1970년대 향설 서석조 박사는 신경내과 전문의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의사였다. 그런 그가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힘겨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미 남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룬 상태였으니 더 큰 부와 성공을 원했다면 쉽고 편한 길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황량한 신창벌에 건물 한 채를 달랑 올려놓은 채 첫 강의를 준비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특히,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순천향대학의 설립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의 남다른 목표의식을 엿보게 된다. 그에게는 제대로 된 대학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꿈이 있었던 것이다.

더 좋은 대학의 본질적 목표에 충실한 대학을 만들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의 꿈은 이상적이기에 단순하고, 단순한 만큼 확고한 것이었다.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인술을 펼친 의사로서 인류에 봉사하는 인재를 키워낸 교육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휴머니스트로서 평생을 일관한 그의 삶 자체가 그 목표를 웅변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의과대학을 통해 훌륭한 의술을 연마한 많은 의학도가 배출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물론 새로운 의학 연구의 산실로서 명실 공히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바 크리라 기대합니다.”(1978년 9월 <향록학보> 창간호)

박사는 이와 같은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천향 대학을 세웠다. 따라서 시대는 달랐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은 그 연장선 위에 있지 않을까. 박사가 염원한 봉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21세기 대학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현실 속에서 충남 아산에 의과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한 안목과 한겨울에 연탄난로를 피워가며 신축 공사를 독려한 열정을 통해 우리는 이 교육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존재의 정체성은 그 지나온 역사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이다. 순천향 역시 역사를 외면하고 새로운 순천향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내일 또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향설 서석조 박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남긴 꿈과 철학의 현재성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순천향 뿌리 찾기’이다. 

# 환자 위한 시설도 사랑도, 혈관 분야 의료진도 '최상'

만성 신부전 환자는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안팎으로 지친 환자들을 위해 마음에서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곳. 그래서 환자가 오하려 의사를 걱정하는 곳.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글\_ 한정현 사진\_ 신봉재



AM 8:00



11월 9일 화요일. 이른 아침 6시에 일산 집을 나선 목문숙 선임 간호사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20분. 출근하는 다른 스텝들의 마음도 평일보다 더욱 부산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혈관센터 소장인 문철 교수의 외래진료가 있어 평일보다 환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업무 시작은 **08:00**. 밖을 내다보니 9시가 되기 전인데도 이미 대기 환자 수는 60명을 훌쩍 뛰어넘으며 예의 부산한 하루를 예고한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별도로 혈관센터(Vascular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혈관센터는

혈액투석 환자와 뇌혈관 질환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다. 혈관센터를 수시로 찾는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진료실이 있어 진료와 검사, 수술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입원을 꺼리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낮 시간을 활용해 요양할 수 있도록 주간병동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실과 검사실, 수술실, 병상까지 함께 갖추고 있어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혈관센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AM 8:50



오전 **08:50**. 인터벤션 시술실에서 첫 번째 수술이 시작됐다. 53세 남성 말기 신부전 환자의 혈관성형술이다. 혈관성형술이란 갖은 투석 등으로 좁아진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은 뒤 부풀려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이다. 김용재 교수와 김혜진 간호사는 수술실 안에서, 이상규 영상학과 기사는 밖에서 모니터를 보며 호흡을 맞춘다. 김교수는 익숙한 솜씨로 직경 3mm의 천자초를 환자 어깨의 혈관에 삽입하는 한편, 발로는 풋 스위치로 실시간 X선 투사 영상과 혈관 모습을 바꿔보면서 시술을 한다. “저장” “로드맵” “저장”... 김교수의 신호에 따라 이 기사는 밖에서 수술 장면을 저장하고 혈관조영제를 넣은 혈관 로드맵 영상을 조정하며 수술을 돕는다. 수술 시간은 30분가량이며 거의 한 시간에 한 명꼴로 수술이 진행된다. 오늘은 외래진료 환자의 수술이 많지만 예약도 없이 혈관이 막혀 혈관센터를 찾는 환자도 많다. 많은 때는 하루에 7~8회씩 시술하는 날도 많다.

AM 10:00



오전 **10:00**. 구동익 영상학과 교수는 판독실에서 시술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구교수와 목간호사는 2001년 혈관조영실 시절부터 혈관센터가 개소하기까지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자 원년 멤버들이다. “국내 4만 명가량이 콩팥의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어요. 이들은 투석을 위해 동맥과 정맥 사이를 자기 혈관 또는 인조혈관으로 연결하는 동정맥루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혈중 산소 농도도 높아지며 더구나 2~5일에 한 번씩 주사바늘로 투석을 받다보면 정맥 벽이 두꺼워져 혈관성형술을 하게 되는 거죠. 혈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의 5년 주기로 왼손에서 오른손, 그다음에는 다리로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 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혈관성형술을 하는 겁니다.”

판독실을 나선 구교수는 방금 수술을 마친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와 상담을 한다. “왼쪽은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오른쪽에 인조 혈관을 넣었어요.”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운동하시는 느낌은 예전만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드시는 것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력 없는 환자를 바라보는 구 교수의 눈빛이 안타깝다. 옆에서는 박향옥 간호사가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을 환자에게 조영제를 주사하고 있다. 혈관을 살펴서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PM 12:00



시간은 이미 12:00를 넘어서고 있는데 외래 대기 환자는 36명이나 남아 있다. 문철 교수의 진료 시간은 오전이지만 매번 이렇게 정오를 넘겨 늦은 오후까지 진료가 이어진다. 오늘도 모두 보려면 오후 4시는 되어야 할 듯하다.

진료실에는 책상 옆, 베드, 그리고 대기 의자에까지 환자가 세 팀이나 들어와 눈코 뜰 새 없이 부산하게 진료를 하고 있었다. “(혈관 사진을 보며) 투석을 어디로 하세요?” “(목 밑을 가리키며) 여기요.” “혈관이 꼬불꼬불해서 한 달만 더 보고 오시죠. 하루에 다섯 번씩 5분 가량 운동해 보시죠.” 말을 마치자 바로 옆 베드로 가서 누워있는 환자의 혈관을 초음파로 스캐닝한다. “간호사들이 혈관이 노출되지 않아 바늘로 찌르기 힘들다고 하는데, 혈관이 4미리가 안 되면 엑스퍼트(숙련가)가 아니면 찌르기 힘들어요. 혈관을 피부 가까이 옮긴 뒤에 해보죠. 그 때까지는 목으로 투석해야겠어요.”

식사도 거른 채 시간이 2시가 거의 되었을 무렵 반백의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권춘자 간호사에게 묻는다. “3시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진료를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뇌출혈 응급환자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어요. 힘들게 오셨는데 모두 봐야죠.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PM 12:30



12:30. 직원들은 삼삼오오 시간을 틈타 지하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오늘 메뉴는 탕수육과 시래기국. 식사를 하던 중 목문숙 간호사가 “너무 참한 감해진 간호사의 남편감을 찾아주자”라며 대놓고 한마디 하는 통에 웃음꽃이 피었다.

17:00. 하루 일과가 종반전에 달하고 배도 출출할 즈음 혈관검사실의 윤수경 간호사가 피자를 돌린다. 통합의료원보 제호 공모전에서 'with 순천향'이라는 제호로 장려상에 당선되어 받은 상금을 피자로 바꾼 것이다. 병원 행사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윤간호사는 '서울병원의 아이디어뱅크'란다. 오후 6시, 정상근무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지만 6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기가 일췌이다. 낮병동은 천장을 파란 하늘로 꾸몄다. 혈관센터를 찾는 환자들의 삶도 이처럼 항상 쾌청하기를 바라는 박향옥 간호사의 마음처럼 그녀의 머리 위로 파란 하늘이 빛난다.



**● 혈관센터는...**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갖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에 개소했다. 약 100평의 면적에 혈관조영실 2개와 혈관검사실, 그리고 진찰실을 갖췄다. 특히, 입원을 꺼리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낮 병동 6병상을 마련해 혈관 접근로가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환자는 영상의학 중재 시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높였다. 게다가 갑자기 혈관이 막힌 환자들은 응급 시술이나 혈전 제거술과 같은 수술로 바로 투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진료를 보지 않아서 좋다”라고 말한다. 센터에서 진료와 시술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덕분에 혈관센터를 찾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과 및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협진할 수 있는 팀 단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 문철 교수를 비롯해 송단·윤상철 교수와 영상의학과 구동익·김용재 교수팀을 핵심 의료진으로 포진시켜 만성 신부전 환자를 완벽하게 케어하도록 했다. 혈관센터는 만성신부전 환자뿐 아니라 뇌혈관 환자를 위한 진료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뇌졸중의 조기 진단과 급성 뇌졸중 환자를 위해 첨단 뇌혈관 촬영기를 도입, 24시간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문철 혈관센터 소장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혈관 수술을 맡긴 최고 권위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를 이끌고 있는 문철 교수의 전문 분야는 혈관동맥류 형성술이다. 혈액투석을 원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투석할 수 있도록 혈관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인조 혈관으로 하느냐 자기 혈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조 혈관 동정맥루 형성술 또는 자기 혈관 동정맥루 형성술이라 부른다. 문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혈관 형성술을 집도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투석 환자를 위한 인조 혈관의 20% 이상을 소모할 정도로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했던 해에 주치의의 권유로 인공 혈관 이식 수술을 했고 서거할 때까지 문제없이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콩팥 이식 외엔 근원 치료법이 없지만 대기자가 10대 1이 넘어 힘들어요. 치료 방침을 잘 따르고 식이요법을 성실하게 하는 환자들의 예후가 좋지요.”

구동익 영상의학과 교수



**전무후무한 혈관 영상의학 중재 시술 기록 보유**  
“혈관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종합 세트’인 경우가 많아요. 3분의 2가량이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을 앓는데 오랜 투병 생활로 경제 활동을 못해 영세민이 되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아 혼자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아 참 안타깝워요.” 구동익 교수는 얼마 전 영상의학 중재 시술(PTA)을 9천례 돌파하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자 노후를 갖춘 것이다. 구교수가 중재 시술을 시행한 지 올해로 12년째. 그간 성과는 첫째 100례에서 지난해 1천100례로 11배가량 경증 뛰었다. 의술은 물론 환자들의 마음까지 달래주기 위해 노력하는 구교수는 연말 직원회식 때면 뮤지컬도 보고 마당극도 보여주는 ‘멋진 샘’이기도 하다.

목문숙 간호사



**따뜻한 관심과 사랑 당부하는 21년 서울병원 지킴이**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 시술실을 2개로 늘렸어요. 현재 상태라면 인력을 보완해 풀가동을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21년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지키고 있는 목문숙 간호사는 9년 전 혈관조영실 시절부터 근무한 베테랑이다. 신부전 환자 외에도 간동맥, 중심정맥, 머리 출혈 환자 등을 수술하는 것도 혈관센터에서 함께 한다. “이곳 환자들은 오랜 기간 자주 오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환자들은 검사와 수술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할 때마다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고 건강도 안 좋아 신경질적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가족들과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워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관심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양순 환자



**오히려 의료진 걱정하는 '단골 환우님'**  
혈관 확장 수술을 받기 전에 낮병동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양순(57)씨를 만났다. “13년 전부터 투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안 이후로는 여기만 이용하고 있어요. 이동이 적고 환경도 깨끗해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이씨는 “혈압이 낮고 혈관도 약해 1년에 세 차례나 수술을 한 적도 있는데 올 때마다 안심이 된다. 열성적으로 성심성의껏 돌봐주시게 오하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건강이 걱정될 정도”라고 말한다. 주위에 같은 병으로 힘들어 하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싶다고 말한다. 얼마 전 결혼한 아들께겐 “항상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그녀가 더욱 활기 찬 생활을 하기를 기원한다.

# 간의 하수구 담도, 직접 보면서 치료한다

문중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췌담도팀, '직접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법' 개발로 국내외서 주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췌담도팀(문중호 교수, 최현중 교수, 송아리 전문간호사)이 담도 내시경 검사에서 진보적인 연구 성과와 치료 실적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담도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담도 내시경 검사의 발전상을 소개한다.

글\_ 문중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췌담도팀



A



B

직접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법(direct POC)을 통해 담도 내 종양을 직접 관찰한 영상(A). 영상 증강 내시경 방법을 적용해 좀 더 자세히 관찰한 영상(B).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들여다본다는 것은 인간 본성 중 하나이다. 특히 내시경 전공 의사가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람 몸 구석구석을 내시경을 이용해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사람 몸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간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가느다란 대롱 모양의 담도는 그 모양 때문에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한편,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쓸개즙)을 담낭(쓸개)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흘려보내는 기관이다. 이곳에 발생하는 담도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해 손도 쓰기 전에 최악의 상황이 돼 버리는 야속한 질환이다. 주로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이나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검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 기존의 담도 내시경 검사법들

담도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의 접근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피부 절개를 통해 간을 지나 담도까지 가느다란 내시경이 통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 후 시행하는 경피경간적 담도 내시경 검사(Percutaneous Transhepatic Cholangioscopy, 이하 PTCS)와 일반적인 위내시경 검사와 같이 입을 통하여 내시경을 담도 내로 삽입하는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Peroral Cholangioscopy, 이하 POC)가 있다.

경피경간적 담도 내시경 검사는 피부 절개 시술을 통해 누공(일종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누공이 완전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검사를 위한 준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 중에서는 1978년 일본 소화기내과 의사인 나카지마 교수가 보고한 모자 내시경 방식(Mother-baby endoscope system: 직경이 굵은 모내시경을 통하여 직경이 가느다란 자내시경을 담도 내로 삽입하는 방식)이 그동안 표준으로 여겨졌으나 역시 여러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모내시경(Mother scope)과 자



췌담도 내시경 시술을 하고 있는 문중호 교수와 전문간호사.

내시경(Baby scope) 두개의 내시경 장비가 필요하고, 이를 각각 조작할 두 명의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사가 함께 시술을 해야 하며, 시술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도 질환의 경우 내시경 검사를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워 방사선하 조영술 검사로 대신해왔다.

## 새로운 검사 방법 고안으로 담도질환의 새로운 전기 마련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췌담도팀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극세경 상부 위장관 내시경(Ultra-Slim Upper Endoscope)을 이용한 '직접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법(Direct POC)'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장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1) 한 명의 의사가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2)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비슷할 정도로 영상 품질이 우수하고, 3) 여러 가지 진단 및 치료적 목적의 기구들이 삽입되는 내시경의 겸자공(관)의 직경이 2.0 mm로 모자 내시경 방식을 비롯한 기존의 다른 시스템보다 커서 보다 많은 진단적 또는 치료적 시술들이 가능하며, 4) 영상 형식으로 개발된 직접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법(Direct POC)은 최신 정밀 내시경 영상 진단 방법인 '영상 증강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고 5)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접근성이 뛰어나다.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경제적이고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면서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국제적으로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POC)의 중요한 방법으로 공인받고 있다. 소화기병센터 췌담도팀은 향후 지속적인 내시경 및 부속기구들의 개발을 통해 담도 내시경 검사의 많은 진보와 담도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직접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법(direct POC)을 통해 관찰한 정상 담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거대 담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레이저 치료와 비슷한 전기 수압 쇄석술(제거가 용이하도록 잘게 깨뜨려 부숴)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극세경 내시경이 담도 속으로 직접 들어간 모습의 X-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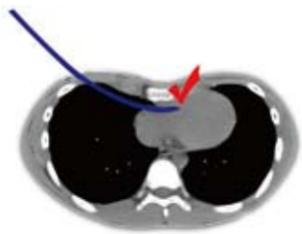
직접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법(direct POC)에 사용되는 올림푸사의 극세경 내시경(GIF-XP260N). 일반 위 내시경의 절반 정도로 가는 직경이지만 일반 내시경과 비슷한 정도의 우수한 영상을 제공한다.

# 오목가슴도 새가슴도 가슴 활짝 펴고 다녀요~

선천성 가슴 기형의 여러 형태에 따라 각각에 적합한 교정 치료 가능해

요즘 젊은이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을 비롯해 성형까지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중 여성에게는 S라인, 남자에게는 초콜릿 같은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가슴이다. 그러나 주변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슴뼈 모양이 잘못되어 멋진 가슴 만들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선천성 가슴 기형인 '새가슴'과 '오목가슴'이다. 증상의 경중을 떠나 가슴 기형을 가진 이들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가슴 기형은 어렵지 않게 교정이 가능해져 더 이상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글\_ 이석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승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교수



모식도 : 기존 너스법

1천 명 중 4~5명이 발생할 정도로 흔한 선천성 가슴 기형인 '오목가슴'은 가슴뼈가 움푹 함몰되어 태어난다. 증상이 심할 경우는 어렸을 때 교정 수술을 받게 되지만,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교정을 포기하거나, 체형이 원래 그런 것으로 오인해 지나치기 쉽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성장하면서 가슴(유방)이 발달하면서 함몰 부위가 다소 감춰져 오목가슴인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 짜짜이 '오목가슴'을 열지 않는 교정 수술 '너스법'

오목가슴 여성은 대부분 비대칭형이다. 짜짜이 가슴 형태나, 가슴이 약간 들어가 밋밋한 절벽가슴(편평가슴)의 형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들 여성들은 가슴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게 마련이다. 옷을 입거나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때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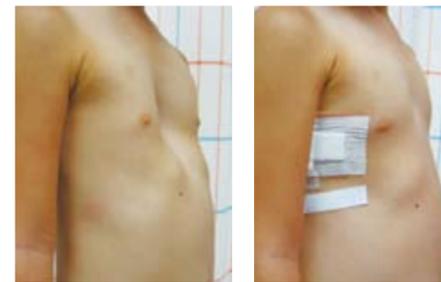


모식도 : 새 너스법

오목가슴도 예전에는 가슴뼈를 여는 큰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젠 '너스법'이라는 오목가슴 교정 수술로 간단히 교정이 가능하다. 1cm 정도의 작은 상처, 1회 수술만으로 가슴 교정이 완료된다. 너스법은 겨드랑이 밑에 1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쇠막대를 앞가슴뼈 밑에 삽입해 함몰된 앞가슴을 들어 올리는 수술법이다. 순천향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문 교수인 천안병원의 이승진 교수는 안전하게 쇠막대를 삽입할 수 있도록 광투시 내시경도 개발해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로 정식 승인받았다.

너스법을 이용해 함몰된 흉벽을 들어 올리면 흉벽이 정상 곡선과 대칭을 되찾아 짜짜이가슴과 절벽가슴이 일시에 아름다운 가슴으로 돌아온다. 만약 더욱 풍만하고 매력적인 가슴을 원할 때에는 너스법으로 수술한 뒤 곧바로 유방 성형술을 받으면 된다. 납작하거나 짜짜이었던 가슴들이 쇠막대 삽입 수술(너스법)로 교정되어 오동통한 흉벽을 이루게 되고, 물주머니를 넣는 유방 성형술이 병행되어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오목가슴 수술



수술 전

수술 후

새가슴 교정



교정 전

교정 후

### 돌출된 가슴 '새가슴' 세계 유일의 가슴 교정기

'새가슴'은 앞가슴이 과도하게 푹 돌출되어 있다. 여성보다는 남자에서 더 많고 선천적으로 발생되지만 성장기를 거치면서 두드러진다. 대부분 어린아이에게서 많이 발견되며, 사춘기를 지나면서 모양 변화가 심해진다.

새가슴 환자들은 특별한 증세를 호소하지는 않는다. 간혹 돌출된 앞가슴으로 인해 흉벽이 유연성을 잃게 되어 호흡 곤란이나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교정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심한 경우 새가슴은 옷을 입어도 외관상 드러나 미용적인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감 결여나 대인관계 기피 등 여러 정신과적인 문제도 겪는다. 얼마 전까지 새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앞가슴을 절개한 후 튀어나온 늑연골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앞가슴뼈인 흉골을 골절시켜서 일자로 펴는 '절골술'이 치료의 원칙이었다. 이 방법은 전신 마취, 광범위한 피부 절개로 인한 거대 상처, 그리고 가슴뼈를 자르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 등 부작용이 만만찮았다. 그러나 2000년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새가슴 교정기를 개발했다. 천안병원 이석열 교수가 개발한 교정기는 아시아 최초로 소개되면서 마취와 수술 없이 새가슴 교정을 가능하게 했다. 교정 방법은 간단하다. 흉부외과 외래에서 검사 후 몸에 맞춰 제작된 교정기를 착용하고, 환자 스스로 호흡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된다. 환자 자체의 힘으로 돌출된 앞가슴이 주변의 정상 가슴 위치로 복원된다. 마취, 수술, 입원 등이 필요 없다. 착용 후 통증도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6개월 정도면 교정이 된다. 치료 효과는 성인의 경우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석열 교수가 개발한 가슴 교정기.

### 새가슴과 오목가슴 동반 교정 '최소 절개술'

간혹 새가슴 환자 가운데 오목가슴까지 동반된 환자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앞가슴에 광범위한 수술 흉터가 남는 가슴뼈를 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 절개술'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앞가슴에는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최소 절개술은 오목가슴 교정 시 사용하는 금속막대를 사용한다. 가슴의 형태에 맞추어 변형한 후 튀어나온 뼈는 위로 집어넣어 눌러주고, 들어간 뼈는 밑으로 넣어 들어 올려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5~6개월 동안의 새가슴 교정 치료를 원하지 않고 한 번에 치료받기를 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기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가슴 기형은 이제 큰 부담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 교정기 치료와 앞가슴 흉터 없는 수술 치료 등 진보된 여러 치료 방법들 가운데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면 된다. SCH

# “환자가 의사 찾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이 우리의 일”

농민의 ‘대의(大醫)’ 김진석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성과는 천천히 나타나고, 열심히 할수록 환자가 줄어드는 분야가 바로 산업의학과이다.

질병을 치료하기보다 미리 막는 예방 활동이 좋아 공장과 농가를 누비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김진석 교수를 만나 보았다.

글\_ 한정현 사진\_ 신봉재

**중** 국 요순 시대에 민중들을 신통하게 고쳐주며 선행을 베푸는 의사가 있었다. 이러한 소문이 황제에게도 알려져 치하하려 하자 극구 부인하며 말하기를 “저의 형들에 비하면 제 의술은 오히려 초라합니다. 상을 주신다면 형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황제가 “형의 의술이 대단하다면 어찌 알려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묻자 “저는 병든 사람을 치료해 눈에 띄게 고쳐주어 많은 칭송을 받기는 하나 소의(小醫)일 뿐입니다. 둘째 형은 병으로 번지기 전에 가벼운 증상만 봐도 원인을 치료하는 중의(中醫)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 크게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큰 형은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므로 사람들은 그가 의사인 줄도 모르는 진정한 대의(大醫)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김진석 교수가 예방의학을 선택한 이유도 ‘대의’의 길에 조금 더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을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질병 예방을 중시하는 산업의학의 매력이다.

## ‘예방’ 효과 보려면 10년 공 들여야

구미에는 그가 지난 15년 동안 인연을 맺어 온 한 기업체가 있다. 초기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근로자 따로 의사 따로였던 것이, 이제는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 동호회도 만



들고 회사는 능동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그가 초보 촉탁 산업보건의로었던 시절, 역시 같은 산업의학 초보로 입문해 15년을 동고동락해 온 회사 담당 간호사는 최근 산업안전공단에서 건강 증진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건강동호회에서는 금연 캠페인, 2차 가지 않기 운동, 폭탄주 안 마시기 운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얼마 전 간호사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성장을 자축하며 ‘10년간량은 공을 들여야 성과가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 한켠이 뿌듯해졌다.

“모든 사업장에는 정도의 차이일 뿐 항상 잠재 질병 요인이 숨어 있어요. 옷·신발·안경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산업 근로자들의 위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산업 환경은 완벽할 수 없기에 종종 위험에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 참여형 국내 농업 현장에 첫 적용

김교수는 이처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 대행 의사 외에도 농업인의 직업병을 연구·조사하고 예방하는 일도 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 보건 사업도 그중의 일환이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경상북도 농작업 안전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농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극현 교수와 함께 ILO(국제노동기구)의 근로자작업환경개선기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업 현장에 맞게 적용한 PAOT(참여형 농작업 환경 개선 활동)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PAOT 기법이란 농

민들의 안전 보전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이자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김교수는 경상북도 내 지역별로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사업과 건강생활촌 마을 건설등도 수행하고 있다. 마을 선정한 뒤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수년에 걸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물리치료와 의학치료 등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건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 공단 특성 반영한 산업의학 ‘수준급’

김교수가 속해 있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산업의학과는 건강진단팀·작업환경측정팀·보건관리대행팀·종합검진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 인력만도 60명을 훌쩍 넘는다. 전국적으로 산업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00여 개 병원 중에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이처럼 예방의학과 산업의학 분야에서 중량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구미공단 한가운데에 병원을 설립하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20년 전 전국 최초로 보건관리 대행을 시작했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1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체도 12개 사가 있다. 김교수는 “전국적으로 산업의학과 분야에서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라 하면 전문성을 인정해 줍니다. 작고하신 한구용 선생님과 우극현 교수님을 비롯한 산업의학과 식구들의 노고 덕분이죠”라며 모든 공을 선배와 병원 식구들에게 돌리는 겸손을 보여 신뢰를 더해준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구진 버스에 오르는 김진석.



농기에서 건강 상담하는 김교수.



농민들의 직업병 예방에 앞서는 김교수.

# ‘행복 전도사’도 못 견디는 천의 얼굴 ‘루푸스’

오해하기 쉬운 ‘낮선 질환’으로 환자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 달라

**최** 근 남편과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해 세상을 놀라게 한 ‘행복 전도사’ 최윤희씨. 그는 루푸스(전신 홍반성 낭창)라는 낮선 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루푸스는 어떤 질환이기에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을까?

루푸스는 가임기 여성(15~45세)을 포함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만성 자가 면역질환이다.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현상이며, 피부·관절·신장·폐·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루푸스는 인구 10만 명에 20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며 시간에 따라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된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루푸스는 먼저 유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원인의 유전자가 서로 합쳐서 생긴다. 유전자만 있다고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성호르몬,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후천적인 환경 요인이 더해져 자극을 받아 생긴다.

루푸스는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다. 단순한 감기를 비롯해 근육통·피부병·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인되기도 하며, 정신병·뇌졸중·간질·간염·신장염·폐렴·심막염·안구질환 등 거의 모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루푸스는 얼굴에 생기는 나비 모양의 발진을 제외하고는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윤희씨는 폐렴까지 나타나 힘든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검사는 98%가 양성을 보이는 항핵항체 검사가 있다.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좀 더 많은 특수 혈액검사를 실시해 확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천의 얼굴을 가진 만큼 치료법도 복잡하고 많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루푸스라는 병은 진단과 치료

가 매우 어려운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이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질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비교적 생존율이 높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모든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 질병의 활성도가 갑자기 증가해 이전보다 훨씬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루푸스의 대부분은 젊은 여성에서 발생해 평생 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 쉽고, 다른 질병과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주치의와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늘 가깝게 상의할 수 있는 평생의 건강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자도 종종 고등학생 시절 발병해 계속 관리해오던 환자가 어렵게 결혼하고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오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들이 평생 늘 심신의 건강이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또 루푸스란 질병이 잘못 오해되거나 편견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없기를 늘 바란다. **sci**



글 \_ 나성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비틀거리는 연말 모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남자 직장인의 7.1%는 알코올로 인한 질병 앓고 있어

**12** 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송년 모임들로 스케줄이 많은 달이면서, 힘들었던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뜻 깊은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자리가 간혹 지나친 음주로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불의의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인들의 음주습관은 자기 파괴적이며, 후유증이 심하다. 밤마다 삼삼오오 모인 직장 동료들이 “먹고 죽자”를 소리쳐 외치며 폭탄주를 돌리는 직장의 술 회식 문화는 개인의 건강이나 안녕을 넘어 회사 및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 정도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으며, 남성 직장인의 7.1%는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조사에 응한 직장인 90%가량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회식 문화는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과 술을 잘 먹어야 인간관계가 좋다는 그릇된 관념으로, 으레 술잔을 돌리고 2,3차를 거쳐 늦은 시간까지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술을 먹어봐야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술을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술 권하는 사회’가 소설의 제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 민족의 술 문화가 타인에게 술을 강요하고, 술이 술을 먹는 폭음의 문화는 아니었다. 옛말에 ‘천하에 인간이 행하는 일이 많지만, 술 마시는 일이 가장 어렵다. 술을 권하지 않을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술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술을 권할 사람

에게 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군자는 술을 권함에 있어서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음주 예절을 지키며, 술을 즐길 줄 알았고 사람을 소중히 할 줄 알았기에, 일찍이 <소학(小學)>이나 <향음주례(鄉飲酒禮)>와 같은 책자에 주도(酒道)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21세기에 옛 것을 무조건 따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격동기를 겪으면서 일그러진 우리의 음주문화를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한다. 자칫 인간관계나 회사, 사회관계를 술로 인해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송년의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술에 취해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자는 신용이 없는 자이며, 우는 자는 인(仁)이 없는 자이며, 소란을 피우는 자는 예의가 없는 자이며, 따지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다.” **sci**



글 \_ 구현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영화배우 안성기 인터뷰

# 영화는 즐거움이며 “도전 그 자체이다”

영화판에 뛰어들어 지 50여 년의 세월. 이쯤 되면 영화가 인생인지 인생이 영화인지 구분이 안 갈 듯하다. 5살의 나이에 데뷔, 반세기가 넘게 한국영화를 이끌며 지켜온 국민배우 안성기에 대한 느낌이다.

글\_ 류근원 사진\_ 신봉재



“순천향 대학교 병원보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환자분께 동지로서 희망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안성기  
2010. 10. 4.

‘대통령에서 거지 역까지’ 안 해본 역할이 없는 국민배우 안성기가 이번에는 석유시추선 선장으로 변신한다. 요즘 촬영에, 각종 행사에, 기자회견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통합의료원보 창간을 축하하며 특별히 <순천향> 독자를 위해 시간을 냈다.

**요즘 촬영하고 있는 <7광구> 영화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7광구>는 내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해서 한창 촬영 중인 영화로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석유 시추선 ‘이클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인간의 사투를 그렸습니다. 석유를 다량 생산할 목적으로 배양됐던 생명체가 괴물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인간의 욕심이 파멸을 부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번 <7광구>는 영화 <해운대>를 이을 대작으로 기대받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3D 화면으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맡은 시추선 선장 역할은 마음에 드는지요?**  
영화를 찍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즐거움입니다. 일단 느낌으론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CG 작업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라서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 시추선도 한번 견학만 했을 뿐입니다. 촬영은 주로 파주 세트장에서 이뤄졌어요. 하지만 최고의 CG팀이 작업한다고 하니 생생한 완성도가 기대됩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촬영했던 거죠. 제가 과거 <남부군>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였어요. 오대산 산골짜리 얼음 굴속에서 10~15분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감각도 없어지더군요. 촬영을 끝내고 휴식하는 동안에도 정신이 오락가락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돌이켜 보면 그때 참 무식했어요. 지금이라면 방한 장비를 갖춰서 들어갔거나 잠깐잠깐 휴식이라도 취했을 텐데 말이죠.

**평소 영화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더군요.**  
네, 굿다운로더 캠페인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올해로 1년째죠. 이대로 놔두면 우리 영화계의 존폐를 고민할 만큼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나섰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도 요즘도 영화계 현안입니다. 과거에는 영화가 극장에서 흥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비디오 시장이 있어 50:50으로 추가 수익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극장에서 실패하면 바로 끝나버리죠. 이런 구조가 요즘 영화계

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굿다운로더 캠페인이 효과가 있는지 점차 불법 다운로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상한 이미지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다만 유니세프 활동... 벌써 인연 맺은 지가 20년이나 되었네요.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16년째 맡고 있는데 이젠 가족 또는 직원 같은 느낌입니다. 올해도 아이티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보면 이걸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아들 이름이 ‘필립’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첫째 다빈이는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둘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안필립 선생의 이름을 따서 지으면 어떻겠냐고 아버지께 의논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영화를 하겠다고 환영이지요. 하지만 첫째는 지금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둘째는 고3인데 사진에 관심 있어 해서 사진학과를 갈 생각이네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시킬 생각입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한 번도 크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이 장수 유전자를 지녔는지 다행스럽게 큰 우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건강을 자신하지도 않습니다. 건강관리라면 어떤 운동이든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컨디션을 항상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하는 운동인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점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경우는 몸이 자산이라서 더욱 더 열심히 습관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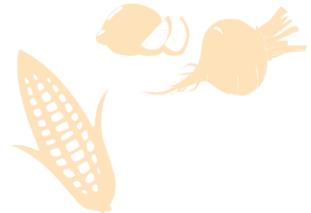
**<순천향> 독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무엇이든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놔버릴 때 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 살아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아기 받는 남자의 아주 특별한 레시피

# 연말 파티 요리 강추! 크림소스안심파스타



연말연시, 이번 모임은 좀 특별하게 가지고 싶다면 홈파티를 해보는 건 어떨까. 달리 준비할 것 없이 요리 하나만 제대로 신경 쓰면 된다. 와인 잔 준비하는 것은 센스. 영화에서처럼 멋진 파티를 현실로 만들어 줄 준비가 되었나요?

글·사진\_ 황인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산부인과 교수

요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익숙하지 못할 경우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상대방을 알아보는 계기도 되고, 10년 이상의 지기를 만난 것처럼 친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가졌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배부른 행복과 만남의 행복을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면서 같이 먹을 사람을 생각하게 되며, 먹는 이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리할 때와 먹을 때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된 2010년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를 해

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연말에 술과 회식, 음주가무 등으로 표현되던 송년회가 유행했지요. 요즘은 가족들끼리 혹은 친한 지인들과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홈파티인데 중국 음식을 시켜 먹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평상시 먹던 음식은 창피하고,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손님들과 집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면서 한 해 못다 한 이야기와 아쉬운 이야기, 그리고 내년의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근사하지 않나요? 그럼 이런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멋진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와인과 함께 시작하는 상큼한 레몬드레싱 샐러드

크리스마스의 메인 요리 안심이 들어간 크림소스안심파스타



**재료** 신선한 야채, 토마토, 후추, 치즈 가루, 레몬 : 올리브오일 : 꿀 1 : 2 : 1의 드레싱  
**만드는 법** 야채를 씻은 다음 물기를 제거한 후 적당한 분량의 드레싱을 뿌려준다  
**Tip** 야채를 고를 때는 씹살한 맛과 고소한 맛이 나는 야채를 선택한다. 치즈 가루는 먹기 전에 그레이터로 직접 갈아서 뿌려주면 비주얼의 효과도 만점.

**재료** 신선한 안심, 스파게티, 소금, 후추  
**소스 재료** 양송이버섯 5개, 양파 반 개, 우유 200cc, 생크림 50cc, 블루 치즈 30g,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2인분 기준), 버섯가니쉬 표고버섯 한 줌, 로즈마리 한 줄기

**만드는 법**  
1. 크림소스를 만들어 준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두른 후 버섯과 양파를 살짝 볶고 적당한 분량의 재료를 넣고 끓인 다음 굵게 갈아준다.  
2. 안심을 굽는다. 안심은 센 불에 두 번 정도 뒤집은 다음 굽는 것이 가장 맛있다.  
3. 파스타 위에 올려줄 버섯을 준비한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른 후 버섯과 로즈마리를 넣고 빠르게 볶아준다.  
4. 만들어진 소스와 잘 구워진 안심 그리고 알맞게 삶아진 파스타를 넣고 1분 정도 버무리 준다.  
**Tip** 고기를 넉넉히 준비해 따로 그릇에 담으면 맛있는 스테이크가 된다. 파스타는 많은 양을 만들면 맛이 덜 할 수 있으니 1인분씩 나누어서 한다.

다음 블로그 '아기받는 남자의 사는 이야기'(http://blog.daum.net/drcook)를 운영하고 있는 황인철 교수는 요리를 주제로 다양한 레시피와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인기 블로그로 자리 잡고 있다. 의사와 요리?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행복을 요리는 의사로 맛있는 건강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의학 이야기도 쉽게 풀어 설명해 산부인과 건강정보 제공과 질병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단감 피클·방울토마토 구이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감 피클



안심스테이크



방울토마토 구이



\* 옛날 어느 마을의 다섯 총각이 원님의 딸에게 장가들기 위해 바위를 오봉 위에 던져 힘 자랑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



**집**을 나서니 걷기 딱 좋은 선선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간질인다. 산본에서 수유역까지는 1시간이 넘는 거리. 함께 길을 나서 준 아내와 일정을 계획하다 보니 훌쩍 시간이 지나버렸다.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내리니 북한산 둘레길을 알려주는 팻말이 전봇대 위에서 반갑게 맞는다. 우이동 계곡길을 따라 늘어진 음식점들을 뒤로하고 가뭄 숨이 쉬게 되는 지점에서 본격적인 우이령길 시작인 우이동 탐방지원센터가 보인다.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한 우이령길**

우이령(소귀고개)길은 도봉산과 북한산이 맞닿은 곳에 있는 총 4.5Km의 길이다.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 사건으로 인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40여 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없어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긴 흩인 마사토로 길이 덮여 있어 맨발로 걷기에도 그만이다. 더욱이 하루 1천 명만 예약을 통해 받는 관계로 날씨 좋은 주말 오전에 가더라도 차분하게 자연을 음미하며 걸을 수 있다.

30여 분을 걸어 오르자 단풍나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예쁜 산책길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새빨간 단풍나무와 황톳빛 떡갈나무, 고고히 푸른빛을 유지하는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었다. 이런 장면을 놓칠 수 없어 잠시 쉬면서 사진을 찍어본다. 다시 걷기를 시작하고 얼마 후 말로만 듣던 우이령 고개가 나타났다. 6·25 전쟁의 부산물로 남아 있는 대전차 장애물이 서 있는 곳이 말로만 듣던 우이령 고개였다.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한 우이령길'이라는 설명이 마음에 닿는다.

**숲이 말을 걸어온다, 마음이 열린다.**

고개를 넘어서자 멀리 5개의 봉우리가 오색찬란한 단풍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조금 아래에 있는 오봉전망대에서 오봉의 유래를 읽고 다시 바라보니 웅장한 규모와는 달리 정겨움이 느껴졌다. 오봉을 뒤로하고 중간 중간 숲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힌 안내판들을 읽으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숲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기분이다.

여러 나무가 섞여 있던 숲이 어느덧 푸른 숲으로 색을 달리 하는가 했더니 솔 향 가득한 길로 접어들었다. 안내도에는 '숲이 주는 혜택, 천연의 공기 청정기'라고 쓰여 있다. 과연 이게 서울 공기인가 싶을 정도로 맑고 달다. 나도 모르게 머리가 투명해지고 가슴이 트이는 듯 했다.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며 좋은 공기를 몸안 가득 담는다.

산행 중간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담소하고 여러 풍경을 사진 속에 담는 동안 시간은 어느덧 2시간 반이 흘렀다. 점심을 갖는 시간. 기분 좋은 허기를 느끼기 시작할 때쯤 중점인 교현탐방지원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SCF**

**여행 안내**

-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 120번이나 153번 버스 종점 정거장 하차 → 우이동 먹물거리 마을 방향
-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동반했다면 계곡에 있는 음식점에 차를 세우고 가벼운 산책 코스로 입구 초소를 돌아와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북한산 우이령길

# 40여 년간 숨겨져 있던 서울의 속살

왠지 소수정예라는 말에는 마음이 끌리는 법이다. 다음 둘레 여행지를 찾아 머릿속으로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바삐 오갈 즈음 북한산 우이령길이 떠오른 건 아마도 그 때문인 것 같다. 가까운 서울에 있지만 예약을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그 말에, 북한산 단풍이 가장 예쁘리라 했던 11월 초로 서둘러 예약을 마치고 날을 기다렸다.

글·사진\_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건강관리 매니저 역할에서부터 응급 상황 대처까지 척척 해결

# 스마트폰은 생명의 단말기

건강관리 노하우를 담은 스마트폰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병원 검색까지 손 안에서 척척 해결할 수 있어 주치의보다 낫다는 평을 얻기도 한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보았다.

글·사진\_ 류근원

‘모르면 병, 알면 약’이라는 속담처럼 스마트폰은 모르고 쓰면 병, 알고 쓰면 약이 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목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환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른바 ‘스마트 폰 관절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진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소리이다.

최근 스마트폰 건강 관련 인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중에는 건강관리 노하우가 A부터 Z까지 충실하게 담겨져 있으며, 병원 검색까지 손 안에서 척척 해결할 수 있어 주치의보다 낫다는 평을 얻기도 한다. 또한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는 트위터(서울병원 [http://twitter.com/sch\\_love](http://twitter.com/sch_love), 부천병원 [http://twitter.com/sch\\_people](http://twitter.com/sch_people), 천안병원 [http://twitter.com/sch\\_cheonan](http://twitter.com/sch_cheonan), 구미병원 [http://twitter.com/sch\\_gumi](http://twitter.com/sch_gumi))를 통해 병원소식은 물론 의사들과 환자들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 내 손 안의 주치의...진료비 비교 서비스까지

전체 무료 어플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건강 관련 지존 앱은 ‘마이닥터 애플리케이션’이다.

웹솔루션 전문 업체에서 내놓은 ‘마이닥터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앱스토어, 티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현재 지원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아이폰3G·4G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16개 단말기에서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하다. ‘마이닥터 애플리케이션’은 병원 및 의료정보 검색 서비스로 개발



되었는데, 병원 및 의학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앱에서 직접 병원 예약 및 상담까지 가능하며, 각종 질병 정보와 의료 용어 검색을 제공하는 의학백과, 시력 및 청력 검사와 스트레스 지수 검사 등 30여 종류의 자가 진단 및 치료 견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회원 전용의 마이메뉴를 통해 실시간 병원 예약, 상담, 이벤트 참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병원 찾기’ 앱의 경우 전국 7만8천여 병·의원의 주소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위치에서 사용자 주변에 있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고, 관심 병원으로 등록된 병원은 별도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간단한 무료 ‘시력 검사’ 앱도 있다. ‘밴트(Bant)’는 당뇨 환자가 매일 자신의 혈당 수치를 기록해 관리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 무료 앱이다.

가까운 병원과 약국을 검색하고, 약국 조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샘939’ 서비스도 정보 이용료 없이 이용 가능하다. ‘M건강보험’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위치 등을 제공하는 앱으로 지난 6월 오픈했다. 앱에는 고객이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 위치 △6만여 개 병·의원 및 2만1천 개 약국 △1만5천 개의 장기 요양 기관 거리·방향·위치·전화번호·진료과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아이폰 앱스토어에 ‘1339 응급의료’ 무료 앱을 선보였다. 이 앱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연결,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 가능 병상 수, 병의원·약국 찾기, 응급 의료기관 종류



별 정보, 응급 처치 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과 문자·이미지·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와 의학 앱과 시스템이 만나 사람 살리는 생명의 단말기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임플란트, 스케일링, 레미네이트 등 주요 치과 시술에 대한 병원별 견적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치과 견적 서비스’도 최근 출시됐다. 치과의 가격 검색부터 병원의 정보 및 위치 파악, 전화 예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원스톱 치과 진료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스마트폰으로 태교도 할 수 있다. ‘내 손에 여성병원’ 앱은 출산을 앞둔 산모와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을 위한 정보는 물론 스트레스 지수 측정 및 건강검진 항목 찾기, 의료진과의 상담 및 병원 예약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차별 태아 정보’ 메뉴에 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면 임신 주차에 맞는 태교 정보를 제공한다.

## 건강한 생활을 위한 헬스 도우미 역할

유료 앱인 ‘슬립 사이클 알람 클락’은 사용자의 수면 주기를 파악해 알람을 울려준다. 깊은 잠에 들면 알람 소리를 들어도 깨어나기 힘

들다는 점에 착안해 얇은 잠 상태일 때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다. 침대 위나 베개 밑에 놓고 자면 자는 동안 사람의 뒤척임을 감지해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는 무료 앱 ‘슬립 메이커 레인(Sleepmaker rain)’도 사용자들의 다운로드 횟수가 높은 편이다.

운동을 도와주는 앱도 많다. ‘101 요가 포즈’는 1백1가지 요가 동작을 사진과 글로 설명한 무료 앱이다. ‘팔 굽혀 펴기 도우미’도 무료이다. ‘운동할래-YOP’은 칼로리나 시간을 지정한 뒤 목표한 만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료 앱이다. SK텔레콤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폰용 무료 어플로는 ‘조깅 도우미’가 있다. 조깅을 할 때 GPS를 이용해 이동 거리와 시간, 속도,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티스토어([www.tstore.co.kr](http://www.tstore.co.kr))의 ‘생활 위치’ 카테고리 중 ‘일상’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이어트를 위한 무료 어플도 있다. ‘칼로리 다우너’는 그날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를 검색해 입력하면 열량 소모를 위해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몇 회의 줄넘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만보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롤**스로이스란 브랜드는 1906년 영국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프레드릭 로이스와 찰스 롤스가 설립했다. 연간 6천여 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는 초호화 수제 브랜드로서 적게 만들어 잘 만들어 가장 비싸게 파는 자동차로 유명하다. 한때 롤스로이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이 3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구매할 자격이 주어졌다고도 한다. 과거에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어야 롤스로이스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현재에는 유동자산 보유량만 조건에 부합하면 된다.

롤스로이스의 상징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만든 라디에이터 그릴 기둥의 웅장함은 대단하다. 한 대에 들어가는 실내 가죽은 스칸디나비아산 소 18마리 분량으로 40명의 최고 전문가의 손바느질로 만들어진다. 롤스로이스의 또 하나의 상징인 보닛 끝에 달린 환희의 여신(Spirit Ecstasy)은 영국 조각가 찰스 사이크스가 1911년 롤스로이스의 주주였던 존 몬태규의 애인이던 엘레노어 손튼을 모델로 만들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달리는 요트, 달리는 별장, 황제의 자동차'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1백25km가 넘는 속도로 달려도 차 안

에서는 깨각거리는 시계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커피 잔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한다. 즉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이란 의미로 단순히 최상급 차가 아닌, 우아하면서 디자인 면에서도 사람들이 영구히 탈 수 있는 차가 롤스로이스이다. 그래서 마이바흐,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꼽힌다.

롤스로이스는 밤하늘을 보는 듯한 광섬유 내부 조명, 스피커 15개로 이루어진 9채널 420와트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전자식 6단 자동변속기 등 수많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대를 판매한 뒤, 올해 10월 말 기준 17대를 판매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롤스로이스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은 철저히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장 방문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에 예약한 고객이 전시장을 방문하면 통유리의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입구에는 출입을 거절하는 블루 테이프의 바리케이트를 세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주는 서비스로 유명하다.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세계 3대 명차의 하나

# 황제의 자동차,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롤스로이스. 한때 유동자산이 3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굴릴 자격'이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구매할 조건이 된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왕의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고객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난다. 롤스로이스만의 세계로 안내한다.

글\_ 이미중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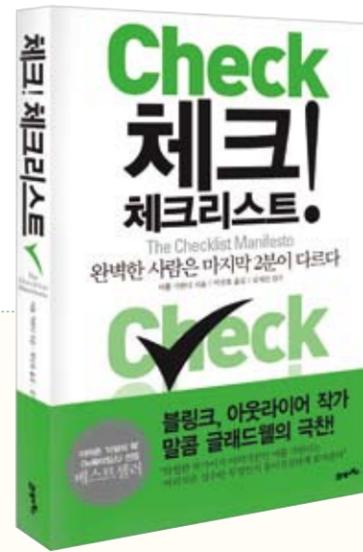


김성희 부장의 행복한 책장

# 재앙을 막는 종이 한 장

체크리스트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력과 정신적 허점으로부터 실수를 막아주는 것이다.

글\_ 김성희 중앙일보 문화부장



“체 크! 체크리스트.” 세상이 어지러워 그런지 아니면 나이 때문이지 깜박깜박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출근하려 집을 나섰다가 휴대전화, 담배, 손수건, 심지어 지갑을 놓고 나와 종종 되돌아갑니다. 14층 아파트로 올라가려니 아내에게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에게 짜증도 납니다.

1935년 미 육군항공대(당시엔 공군이 없었습니다)에서 차세대 폭격기 선택을 위한 비행 시험이 열렸습니다. 보잉의 모델 299는 기존 기종보다 훨씬 빠르고 비행 거리는 두 배나 돼 가장 유력한 후보였죠. 그러나 육군항공대 에이스가 조종하던 이 폭격기는 공중 폭발했습니다. ‘한 사람이 조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탓이죠. 하지만 모종의 조치를 취한 후 평범한 조종사들도 쉽게 다루게 돼 모델 299는 미국의 주력 폭격기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하늘의 요새’로 불렸던 B-17 이야기입니다.

미 하버드대 의대의 조교수는 개인적이고 소소한 실수든, 재앙을 초래하는 치명적 실수든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 소개할 <체크! 체크리스트>(아틀 가완디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의 핵심입니다.

지은이는 우리가 사고를 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지식이 불완전한 무지와, 필요한 지식은 있지만 적용을 잘못한 무능이래요. 그런데 20세기 이후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식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무지보다 무능이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들테면 미국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세 배에 달하는 15만

명 이상의 환자가 수술로 사망하는데 그 절반은 피할 수 있었던 의료 사고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지은이는 개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지식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현실에 적용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점검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만 활용하면 이 같은 실수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 지은이는 ‘안전수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 세계 8개 병원에서 시험했는데 석 달 만에 합병증은 36%, 환자 사망률은 4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결국 그의 리스트는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채택되었다죠.

아,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과 ‘나쁜 체크리스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일을 하는 방법이나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고, ‘나쁜 체크리스트’는 애매모호하고 길며 비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두뇌를 활성화하기보다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나쁜 체크리스트는 현장을 잘 모르는 사무직원들이 생산해낸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기사를 다 쓰고 나니 ‘야마’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줄 체크리스트는 누가, 언제 만들어줄까요? **SCH**

대형 창작 뮤지컬 <영웅>

# 1909년, 애국청년들의 가슴 뜨거운 싸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감동적으로 그려

글\_ 이미종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뮤 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장엄하게 펼쳐낸 창작 뮤지컬로 감각적이고 섬세한 연출과 실물 기차가 무대에서 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무대미술이 특징이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대형 창작 뮤지컬 <영웅>은 지난해 LG아트센터에서 초연되었으며 올해는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초연에 비해 짜임새를 강화하고 안무를 보강했으며 추격 장면을 좀 더 다이내믹하게 표현했다.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최우수 창작

뮤지컬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6개 부문을 석권했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안중근 역에는 정성화가 초연에 이어 2년째 캐스팅되었으며, 새 얼굴로는 양준모와 신성록이 발탁돼 세 사람이 번갈아 무대에 오른다. **SCH**

일시 2010년 12월 4일 ~ 2011년 1월 15일 시간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관



## 순천향대학교 / 중앙의료원

### 이주호 장관의 1시간20분 특별한 열차 특강 아산→서울역 구간에서 대학생들과 열띤 문답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월 1일 충남 아산시 신창(순천향대)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누리로 열차 안에서 순천향대 학생들을 상대로 '공정의 변화-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무궁화호를 대체한 친환경 전동차인 누리호가 1시간20분 운행한 시간 내내 열띤 강의와 문답이 이어졌다. "시험 점수를 1점 더 올리는 교육으로는 글로벌 인재 길러낼 수 없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에서 끊어줘야 하죠. 그게 바로 공정 교육입니다. 미국에선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객차 통로를 누빈 이 장관의 입에선 잡치는 학교, 사교육 팽창, 교원 평가, 교장 공모제, 일제고사, 창의 인성 교육 등 올 한 해 우리 교육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현안이 쉼 없이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11월 8일(월) 오전 11시부터 순천향대학교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자 가족과 지역주민, 외국인 유

학생과 재학생 등 4백60여 명이 참여해 배추 1천 포기(1천7백kg) 분량의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대학이 위치한 신창면 관내 무의탁 노인, 결혼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면사무소와 협의해) 5백여 포기를 직접 배달하고, 참가한 탈북자 가족 및 학생들에게 2백여 포기를,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중 자취생에게 나머지를 나누어줄 예정이다. 김치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미국 아칸사스대(University of Arkansas) 교환학생 스콧 라빈(Scott Lavigne)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며 "내가 만든 직접 김치를 기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 김홍래)가 9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0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 수행 기관' 평가 결과 사업에 참여한 전국 1백78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해 A등급을 받았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은 대학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 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전자정보공학과 김창교·김승우 교수, 에너지환경공학과 하진욱 교수가 참여해 자율 이동 로봇의 개발, 환경친화적 코팅 기술 개발 등을 개발했다. A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장애우와 함께하는 한마음 산행대회



김진호 교수와 재학생 31명이 서포터즈를 자처하고 나섰다. 장애우 중 5명은 용봉산(해발 381m) 정상까지 도전해 성공하기도 했다. 아산성심학교 교무부장 박병기 교사는 "장애학생들이 산행 경험이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산행 계획을 할 수 없었던 터에 대학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이번 산행은 장애학생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유학생과 한마당, 글로벌데이(Global Day)



10월 26일(화)~27일(수) 학생회관 앞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글로벌 데이(Global 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영국 등 영어권과 중국어권, 동남아권 등 총 17개국에서 온 1백10여 명. 이들은 행사의 주최자가 되어 자국 전통 의상을 입고 직접 전통 음식을 만들어 선보였다. 공예품과 전통놀이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해외 88개 대학 중 24개 자매결연 대학 출신 교환학생들은 재학생들에게 직접 모교의 시설과 장점을 알리고, 같은 학생의 관점에서 교환 학생의 이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 산학 협력 성과 홍보



11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순천향대학교가 그간의 산학 협력 성과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관해 손풍삼 총장과 함께 우리 대학의 부스를 살펴보고 산학 협력 성과를 확인했다. 산학협력단 BRIC 천연향장품연구소가 개발해 국내 및 국제 특허 PCT 출원하고, 협력 업체와 상품화에 성공한 '인삼 애플루트 정유'를 포함하는 여드름 치료용 비누'를 선보였다. 대학의 기술 지도로 탄생한 인삼 향수와 천연 성분을 이용한 새집 증후군 처리제 등도 소개되었다.

10월 30일(토)에 열린 교수, 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한마음 등반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산행에는 아산 성심학교 초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우 3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특수교육과 김진호 교수와 재학생 31명이 서포터즈를 자처하고 나섰다. 장애우 중 5명은 용봉산(해발 381m) 정상까지 도전해 성공하기도 했다. 아산성심학교 교무부장 박병기 교사는 "장애학생들이 산행 경험이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산행 계획을 할 수 없었던 터에 대학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이번 산행은 장애학생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10월 26일(화)~27일(수) 학생회관 앞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글로벌 데이(Global 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영국 등 영어권과 중국어권, 동남아권 등 총 17개국에서 온 1백10여 명. 이들은 행사의 주최자가 되어 자국 전통 의상을 입고 직접 전통 음식을 만들어 선보였다. 공예품과 전통놀이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해외 88개 대학 중 24개 자매결연 대학 출신 교환학생들은 재학생들에게 직접 모교의 시설과 장점을 알리고, 같은 학생의 관점에서 교환 학생의 이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11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순천향대학교가 그간의 산학 협력 성과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관해 손풍삼 총장과 함께 우리 대학의 부스를 살펴보고 산학 협력 성과를 확인했다. 산학협력단 BRIC 천연향장품연구소가 개발해 국내 및 국제 특허 PCT 출원하고, 협력 업체와 상품화에 성공한 '인삼 애플루트 정유'를 포함하는 여드름 치료용 비누'를 선보였다. 대학의 기술 지도로 탄생한 인삼 향수와 천연 성분을 이용한 새집 증후군 처리제 등도 소개되었다.

###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강화 사업 PMC 용역 수주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10월 26일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과 함께 2010년 하반기부터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은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립병원 내 모자병동(센터) 신축과 관련해 지역 보건 의료 환경을 확대 개선하고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산모 및 유아 사망률 감소 효과를 목표로 모성 및 유아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10년 4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 진료 및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설 신설을 통한 모성 및 유아 건강 증진, 응급 환자의 진료, 의료인력 교육을 통한 효율적 센터 운영,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대해본다. 국제협력단장 유병욱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의학 지식 및 의료 기술을 캄보디아 현지 의료 인력에게 전수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의료원의 진료 능력을 증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협력 의료기관과 우호 증진, 만남의 장 행사 마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서울병원)은 11월 8일 서울그랜드하얏트 남산룸에서 제16회 의료 협력을 위한 협력·협진 병(의)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의료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열린 행사이며 협력병원 조인식에서는 소화기동병원(병원장 김덕희)을 비롯해 서울대호병원(원장 이수호), 제민외과(원장 김무철·김희숙), 연세세미내과의원(원장 김철) 등 4곳이 서울병원과 새롭게 의료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임상 강의는 '위암 치료의 최신 지견, 하이브리드 노츠(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 '성인 예방 접종 Q&A(감염내과 이은정 교수)' 'B형 간염의 치료, 바뀐 건강보험 기준을 중심으로(소화기내과 정승원 교수)' 등 3명이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제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진 '시골 의사' 박경철 원장의 '의사가 알아야 할 재테크' 특강도 큰 관심을 모았다.

#### 봉화산 오르며 순천향 가족에 함양



서울병원은 10월 16일 강원도 춘천 봉화산에서 '2010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직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신병준 병원장을 비롯해 1백55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등반대회는 소주개를 출발해 봉화산 정상에 거쳐 구곡폭포 입구로 하산하는 코스로 이어졌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닭갈비와 막걸리로 땀을 식히며 순천향 가족애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서울병원 동정

- 조주영·김진오·조원영 교수 / 소화기내과  
10. 12~15 일본 소화기내시경학회 연제 발표
- 변동원 교수 / 내분비내과  
10. 14~21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골대사학회 연제 발표
- 김미경 교수 / 산부인과  
10. 16~22 미국 IABE 연제 발표
- 조영덕 교수 / 소화기내과  
10. 20~28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소화기학회 연제 발표
- 유병욱 교수 / 가정의학과  
10. 21~23 일본 의료관광 및 국제의료관광학회 연제 발표
- 장재영 교수 / 소화기내과  
10. 28~11. 3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간학회 연제 발표
- 이상철 교수 / 중앙혈액내과  
10. 29~11. 1 아시아태평양 조혈모세포 이식 학술회 연제 발표
- 이동환 교수 / 소아청소년과  
10. 2~6 국제신생아스클리닝학회 7차 아·태 지역 모임 연제 발표
- 이경복 교수 / 신경과  
10. 13~16 세계뇌졸중학회 학술대회 좌장 및 연제 발표

#### ○ 부천병원 동정

- 이승원 교수 / 이비인후과  
10. 29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우수연제 학술상 수상
- 김범태 교수 / 신경외과  
11. 13 2010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저술상 수상
- 김용배 교수 / 성형외과  
11. 5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선출
- 김도진·박성우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9. 18~22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ERS)에서 주제 발표
- 문종호 교수 / 소화기내과  
9. 19~22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소화기주간에서 초청 강연 및 시연
- 김재욱 교수 / 이비인후과  
9. 24~30 미국에서 열린 미국이비인후과학회(AAOO)에서 주제 발표
- 이태경 교수 / 신경과  
9. 25~28 스웨덴에서 열린 유럽신경과학회(EFNS)에서 주제 발표
- 김효중 교수/응급의학과  
9. 27~10. 2 미국에서 열린 미국응급의학회에서 주제 발표
- 이상훈 교수/피부과  
9. 30~10. 3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피부학회(DADC)에서 주제 발표
- 신호성 교수/성형외과  
10. 2~11 미국에서 열린 미국성형외과학회(ASPS)에서 주제 발표
- 조영성 교수/응급의학과  
10. 6~12 이탈리아에서 열린 초음파 비영리단체 WINFOCUS에서 주제 발표
- 김태희 교수/산부인과  
10. 13~15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산부인과학회(SIU)에서 주제 발표
- 이문성·문종호·유창범·김삼균 교수/소화기내과  
10. 23~27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소화기학회(UEGW)에서 주제 발표
- 임수빈 교수/신경외과  
11. 1~5 아시아태평양중추학회(APCSS)에서 주제 발표

## 복부초음파 및 초음파내시경 진단 워크숍 대성황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및 소화기연구소(소장 이준성 교수)는 10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내 동은대강당 및 소화기병센터에서 '복부초음파 나만의 노하우'를 주제로 복부초음

파 및 초음파내시경 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26회를 맞은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4백여 명의 관련 전문의들이 동은대강당과 CEO강의실을 메워 성황을 이뤘다. 오후에는 간 종괴 감별 노하우, 담석 놓치지 않는 노하우, 췌장 종괴 감별 노하우, 개원이가 접하는 흥미로운 초음파 증례 토의 등에 대한 강의와 증례 시연, 핸드온코스를 진행했다.

##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용 협약



서울병원과 용산구청은 10월 15일 오후 3시 용산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수탁 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병원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지역 사회 위기 관리 사업,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용산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정신보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신병준 서울병원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상우 용산구정신보건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병원이 우리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더욱 믿음이 간다"라며 정신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병준 서울병원장은 "지난 36년 동안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온 순천향대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온누리교회 협력·우호 증진 MOU 체결



서울병원은 10월 8일 온누리교회와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신병준 병원장과 하용조 담임목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교회 성도 및 가족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괄적 이해각서

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또 교회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을 병원에 추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병준 병원장은 "성도님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진료뿐 아니라 교회 행사에도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용조 목사는 "역사와 전통의 순천향대병원과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 우리 교인들이 순천향대병원에서 질병 치료는 물론 마음의 치유도 얻을 수 있게 지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국내 9번째 네쌍둥이 태어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하 부천병원)에서 지난 9월 27일 오전 국내 9번째 네쌍둥이가 태어났다. 네쌍둥이의 부모는 시험관 시술로 얻은 귀한 네쌍둥이를 갖게 됐지만 산모의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임신 27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네쌍둥이를 받아줄 만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부부는 부천병원 의료진과 만난 후 무사히 네쌍둥이의 출산을 계획했다. 부천병원 의료진도 추석 연휴 내내 도상 연습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의 시간을 가진 후 국내 9번째의 네쌍둥이 출산을 맞았다.

###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

부천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5번째로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이하 HOPO)으로 지정됐다. HOPO로 지정된 부천병원은 10월부터 잠재 뇌사자에 대해 뇌사 판정과 장

기 적출 및 이식 업무를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장기 기증·뇌사 판정·장기 적출·이식 등에 관한 업무를 직접 통합해 수행하게 되었다. HOPO로 지정됨에 따라 부천병원은 앞으로 만성 신부전 환자과 간 이식 대상자 등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성형외과 김용배 교수 대한성형외과학회 신임이사장 취임

부천병원 성형외과 김용배 교수가 지난 11월5일부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김용배 교수는 학회 이사장 직분을 수행하며,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성형외과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 내분비내과 강성구 교수 옥조근정훈장 수훈

부천병원 내분비내과 강성구 교수가 지난 11월 15일(월) 국무총리실에서 옥조근정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강성구 교수는 그 동안 국민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 베다니 마을에 사랑의 의료봉사 실시



지난 10월 16일 부천병원과 덕우리아온스클럽이 공동으로 행려인 입소 시설인 시흥시 베다니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베다니마을은 행려인 입소 시설로 노인과 장애인 등 약 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인들은 시설 내 신경외과·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소화기

내과·영상의학과 등 총 6개 과의 간이 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았다. 이날 환자는 총 67명이었으며, 진료 85건, 검사 2백25건이 진행되었다. 봉사활동에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직원 36명과 덕우리아온스클럽 회원 15명 등 총 51명이 참가했다.

## 비전 수립에 전 직원 참여



부천병원이 지난 7월부터 의사·간호사·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전 설립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 분석, 내부 교육 및 토론 등 1차 미션과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4차에 걸쳐 비전 교육을 받은 후 20여 개 팀으로 나누어 비전과 관련한 열린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의 결과는 발표회를 통해 모든 직원들과 공유했다. 지난10월 말 모든 토론 및 발표의 과정을 마친 부천병원은 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곧 비전을 공표할 예정이다.

## 홍희숙 여사, 합창단과 함께 환자 위해 노래



정신여고 동문 합창단 '정신 choir(지휘 : 최훈자, 반주 현혜란)'의 공연이 지난11월3일 부천병원 향설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정신 choir는 흥대식 부천병원장의 부인 홍희숙 여사가 속해 있는 합창단으로, 흥여사의 제안으로 공연이 진행된 것이다. 환자·보호자 및 교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 총 12곡을 선사했다.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차세대 응급실' 세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 사업' 전담 병원으로 선정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천안병원)은 11월 4일부터 대대적인 응급의료센터 리노베이션 공사에 들어갔다.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 사업'은 정부가 선진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병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새로 조성할 응급의료센터는 356㎡(109평)에서 963㎡(295평) 규모로 3배 가까이 넓어지며, 치료 구역이 나뉘기 때문에 치료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응급환자 전용 CT도 설치되며, 최첨단 센트럴 모니터 시스템도 갖춘다. 우선 12월 22일까지 소아 전용 응급실을 조성하고, 나머지 성인 전용 응급실 공사는 2011년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 ○ 천안병원 동정

**심세훈 교수 / 신경정신과**  
천안병원 신경정신과 심세훈 교수가 10월 22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10 Psychiatry Investigation Award'를 수상했다.

**최환준 교수 / 성형외과** 구미병원에서 전출

**여승구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2011~2012년판 마르쿠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

9. 13~17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방사선종양학회에서 유방암 관련 포스터 발표

10. 30~11. 5 미국에서 열린 미국방사선종양학회에서 직장암 관련 포스터 발표

**김용훈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9. 18~24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ERS)에서 포스터 발표

**이승진 교수 / 심장내과**

9. 20~24 미국에서 열린 관상동맥중재학회(TCT)에 참석

**김소영 교수 / 안과**

9. 20~27 터키에서 열린 국제사시학회(ISA)에서 포스터 발표

**배동한 교수 / 산부인과**

9. 24~29 호주에서 열린 제 14회 호주경계학회(AMS)에서 포스터 발표

**백병준 교수 / 이비인후과**

9. 24~10. 1 미국에서 열린 2010 미국이비인후과학회 두경부수술재단(AAO-HNSF) 연례학술회의에서 포스터 발표

**정두신 교수 / 신경과**

10. 5~8 캐나다에서 열린 2010 미국신경근근 전기진단학회(AANEM))에서 연재 발표

**이종석 교수 / 피부과**

10. 6~13 스웨덴에서 열린 제 19차 유럽성병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배학근·윤석만 교수 / 신경외과**

10. 7~10 일본에서 열린 한일신경외과학회에서 연재 발표

**강규식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10. 8~15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중환자학회에 참석

**이남규·이창호 교수 / 비뇨기과**

10. 13~16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비뇨기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김난실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10. 16~19 중국에서 열린 호흡기질환국제심포지엄(ISRD)에 참석

**전민희 교수 / 감염내과**

10. 20~26 캐나다에서 열린 미국감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전섭 교수 / 산부인과**

10. 23~29 체코에서 열린 국제부인암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심세훈 교수 / 신경정신과**

10. 25~29 미국에서 열린 미국소아정신과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김홍수 교수 / 소화기내과**

10. 28~11. 4 미국에서 열린 미국간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 ○ 구미병원 동정

**최창용 교수 / 성형외과 부임**

**임건일 교수 / 호흡기내과**

11. 21~11. 26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참석

**김형수 교수 / 외과**

11. 24~11. 28 베트남에서 열린 ELSA학회 참석

**김나리 교수 / 신장내과**

11. 15~11. 19 미국덴버에서 열린 미국신장학회 참석



순천향 가족 특별 초청

# 종합검진 안내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산하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구미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순천향 가족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특별 초청 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초청 기간 2010년 12월 1일 ~ 2011년 2월 28일(3개월)
- 초청 범위 순천향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동문 본인 및 가족 자녀, 부모(본인·배우자), 형제, 자매
- 혜택 기본 검진료 20% 할인

(단위: 원)

병원명	남	여	예약전화
서울병원	470,000 ▶ 370,000	490,000 ▶ 390,000	02-709-9161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길 22		
부천병원	470,000 ▶ 370,000	490,000 ▶ 390,000	032-621-502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천안병원	400,000 ▶ 320,000	420,000 ▶ 336,000	041-570-2390
	충청남도 천안시 병영동 23-20		
구미병원	300,000 ▶ 240,000	300,000 ▶ 240,000	054-468-9113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0		

## 검진항목 안내

기본검사	중앙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기본(신체계측 및 비만도 검사, 혈압측정, 일반혈액, 고지혈증, 간기능, 당뇨 & 당화혈색소, 염증반응, 매독, AIDS, 신장기능, 체지방검사, 갑상선기능, 류마티스인자, 소변/대변검사, 안저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흉부촬영(정면 & 측면), 폐기능, 심전도,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치과검사, 영양상담, 생체나이, 액상지공경부암검사, 위검사(위장조영 or 위내시경), 유방촬영
선택검사	골밀도, 동맥경화도, 흉부 CT, 뇌 CT, 요추 CT, 경추 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반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수면내시경, 대장내시경, HPV(부인과) 검사
정밀검사	MRI & MRA, PET-CT(전신, 뇌), 심장 CT, 복부 CT

- 원활한 검진을 위해 3주 전에 예약하고 특별 초청 검진임을 밝혀 주십시오.
- 기본, 선택 및 정밀 검사의 경우 병원별로 항목이나 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 바랍니다.
- 접수시 신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 졸업,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제출바랍니다.

## 의료봉사단, 아산시 어르신들 건강 돌봐



천안병원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다. 서교일 이사장도 진료에 참여한 이날 활동에는 8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아산시 거주 2백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봤다. 현장에는 내과·외과 등 총 16개 진료과 부스가 차려졌으며, 초음파 검사·내시경 검사·방사선 검사·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실과 약국, 영양 상담실도 운영되어, 마치 병원을 옮겨놓은 것을 방불케 했다.

## 아산소방서와 원격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



천안병원은 충청남도아산소방서와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10월 7일 오전 11시 병원장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 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구축 운영 하는 것으로, 구급차에서 환자의 모습과 호흡·맥박·산소포화도 등 각종 생체 정보를 천안병원에 영상 전송하고,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처치 지도를 받는

텔레메트리(Telemetry) 시스템. 병원과 아산소방서는 원격 화상 진료장비들을 설치하고, 올해 말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갖춘 중환자용 구급차가 배치되면 본격적으로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도전! 골든벨’ 감염 관리의 날 행사 개최



천안병원은 11월 10일(수) 오후 4시 연구관 강의실에서 ‘감염 관리의 날 2010 도전! 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총 45명의 교직원들이 출전하였으며, 최후의 1인은 별관 1층 유민주 간호사가 차지했다. 병원은 또 열띤 응원을 펼친 중환자실이 응원상을, 인턴 서동호, 신경외과 중환자실 이은정 간호사에게는 ‘베스트 핸드’ 상을, 항상 깨끗한 기운을 입어 온 신경외과 박혜란 전공의에게는 ‘드레서’상도 수여했다.

## 노발리스트엑스 설치 완료

지난 9월 들어온 천안병원의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 노발리스트엑스가 설치를 마치고 11월 8일부터 빔 데이터 측정 등 물리학적 성능 평가에 들어갔다. 천안병원은 약 5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3일부터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산업의학과 보건관리 대행 업무 20주년 맞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하 구미병원)이 구미공단 사업장(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업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시작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구미병원은 1988년부터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집단 산업 보건관리 모델 개발에 주력, 1990년 3월 집단산업보건관리연구소(소장 산업의학과 우국현 교수)를 개설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한·일 기술 협력 사업을 시행했다. 구미병원은 보건관리 대행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개시했다. 보건관리 대행은 효율적인 보건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 유지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 병원 중장기 발전 방안 설명회 가져

구미병원은 10월 1일 항설교육관에서 병원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를 가졌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우수 의료진 확보와 각 특성화센터 및 진료의 활성화, 교직원 교육 기회 확대, 홍보 활성화, 고객만족도 향상장비를 추가 도입하며 시설 면에서도 환자의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오천환 병원장은 “새로운 희망과 정상을 향한 도약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강조했다.

### “우리 가락과 민요 춤에 흠뻑 빠져 봅시다~”



구미병원은 10월 13일 오후 1시, 병원 로비에서 ‘민요 춤 공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실버날개무용단은 민요 ‘노들강변’을 비롯해 ‘아리랑’과 가요 ‘아빠의 청춘’ 등을 춤과 함께 선보였다. 신경과 병동에 입원 중인 김규태(72·왜관읍)씨는 “춤 추고 신나게 민요도 부르니 병이 절로 낫는 것 같다”라며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준 봉사단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구미병원은 정기적으로 병원 로비에서 문화 공연 행사를 마련,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돕고 있다.

### 신랑 웨딩 건강검진 실시

구미병원 비뇨기과에서 신랑 웨딩 검진을 내놓았다.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과 자녀계획을 세웠다면 필수 검사인 이 검진은 불임 검사, 전립선암 검사, 성기능 검사, 성병 검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 후 임신 및 출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성 질환들을 미리 점검, 치료하는 계기가 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문의:비뇨기과 054-468-9280



# COMMUNICATION Schedule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 일정보

진료과	구분	주요 진료 분야	진료 교수	진료일	
				오전	오후
소화기내과 9581	선택	식도, 위장관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소화관운동질환, 치료내시경	이준성	월	화, 수, 금
		상부소화관 질환(위, 식도) 진단 및 치료내시경	조주영	수	월, 화, 목
		소화기암, 소장 및 대장질환, 치료내시경	김진오	화, 금	월, 목
		헤담도, 담석증, 헤장염, 헤담도암, 광역동치료	조영덕	월, 목	금
		헤담도, 담석증, 헤장염, 헤담도암, 광역동치료	천영국	수, 금	화
	일반	간질환, 급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식도 위장역류 내시경치료	장재영	금, (토)	수, 목
		간질환, 급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식도 위장역류 내시경치료	정승원	월, 수, (토)	금
		간질환, 급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김부성	화, 목	
		상부소화관질환(위, 식도) 진단 및 치료내시경	조원영	(토)	수
		소장 및 대장질환, 소화기암 치료내시경	김현건	목, (토)	
소장 및 대장질환, 소화관 운동질환	이태희	화	월		
일반 소화기내과 질환	홍성욱, 박승훈, 강은정, 천강일, 안지호, 전성란	금			
심장내과 9180 · 9181	선택	고혈압, 부정맥, 판막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권영주	월, 수, 금	월, 수
		고혈압, 부정맥, 판막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김성구	월, 수, 금	목
		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심부전,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현민수	화, 목	화, 목, 금
	일반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고혈압	방덕원	목	화, 수
		협심증,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정진욱	화, 토	월, 금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유영희	화, 금	월, 수
호흡기내과 9180 · 9181	선택	폐성유화증, 만성기도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어수택	월, 수, 금, (토)	월
		폐암, 흉막질환, 중환자의학, 기타 호흡기 질환	김기업	화, 금, (토)	화, 수
		결핵, 폐색전증, 혈전클리닉, 기타 호흡기 질환	김양기	월, 목, (토)	목, 금
	일반	감상선질환, 당뇨병	유영희	화, 금	월, 수
		골다공증, 당뇨병, 뇌하수체질환, 부신질환	변동원	월, 목, 금	화, 목
		당뇨병, 갑상선, 뇌하수체질환, 골다공증	서교일	월, 수	
일반	당뇨병, 내분비 질환	박형규	해외 연수		
일반	내분비내과 질환	김지연	화, 토	금	
신장내과 9180 · 9181	선택	당뇨성콩팥병	한동철	월, 목, 금	수
		당뇨성콩팥병, 급만성콩팥병, 투석	노현진	월, 목	월, 목
	일반	신장이식, 말기신부전	전진석	해외 연수	
		급성신부전, 투석, 부종, 신장이식	권순호	화, 수, (토)	화, 금
		일반 신장내과 질환	김은정	화, (토)	목
일반	신장내과 질환	김정현	금, (토)	수	
혈액종양내과 9180 · 9181	선택	유방암, 폐암, 위암, 간담도계암,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	박희숙	월, 화, 목	화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조혈모세포이식	원종호	화, 목	월, 목
		위암, 대장암, 직장암, 간암, 폐암 및 담도암의 항암화학요법	이남수	수, 금	월, 목
	일반	식도암, 위암, 두경부암, 폐암, 뇌종양, 육종 악성 흑색종의 항암화학요법	이상철	월, 수, (토)	수, 금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악성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조혈모세포이식, 혈전증	김경하	금, (토)	화, 수, 금
		암상담	양상당실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감염내과 9180	선택	불명열, 감염병, 여행자감염, HIV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김태형	해외 연수	
	일반	불명열,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여행자감염, 성인예방접종	이은정	월, 목, 금	화
정신과 9224	선택	치매, 노인성정신질환, 뇌손상 후 기억장애(인지장애)정신분열증	우성일	월, 목	월, 목
	일반	우울증, 횡병, 조울증, 정신분석치료	한상우	월, 수, 금	월, 수
외과 / 혈관센터 9140 / 9170	선택	불안장애(공황장애, 공포증), 중독장애(알코올), 일반정신과	황재욱	화, 금, (토)	화, 금
		이식, 내분비계, 혈관외과	문철	화, 목	
		유방	이민혁	수, 금	월, 수
		대장, 직장, 항문, 복강경	김재준	화, 목	화
		간, 담, 췌외과, 복강경탈장클리닉, 당뇨수술	허경열	월, 수	수
	일반	혈관외과, 신장외과	송단	수, 금	
		간, 담도, 췌외과, 복강경	최동호	월, 목	목
		위암, 복강경, 고도비만 복강경수술	김용진	화, 금	금
		갑상선, 내분비계	우희두	화, (토)	화, 목
		대장, 직장, 복강경	조성우	(토)	월, 목
혈관외과	윤상철	순환 진료			
정형외과 9250 · 9259	선택	슬관절, 관절내시경(슬관절, 견관절), 인공슬관절	이병일	월, 수, 금	
		허리 및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축만증, 척추굴절	신병준	화, 목	화
		고관절질환, 인공관절(고관절 및 슬관절), 하지기형 및 외상, 대퇴부외상	서유성	월, 목	월, 목
	일반	관절내시경, 슬관절, 인공관절	최형석	화	화, 목, 금
		허리 및 목 디스크, 척추변형, 척추종양, 척추감염, 하지외상, 미세수술	이재철	수, 금	월, 수
		슬관절, 견관절, 족부, 스포츠손상, 수부	천동일	월, 화	수, 금
미세수술, 수부 상지질환	윤홍기	해외 연수			
일반	고관절 및 인공관절, 일반정형외과	노재휘	(토)	화, 목	

정형외과		슬관절, 견관절, 관절경, 일반정형외과	황은천	(토)	월, 수	
		척추질환, 일반정형외과	이호형	금, (토)	금	
		가정등록 및 가족상담, 노인의학, 비만	조주연	월, 화, 목, 금, (토)	화	
가정의학과 9458	선택	가정등록 및 가족 건강상담, 가정의학, 노인의학, 금연상담	홍성호	수, (토)	월, 수, 목	
		일반	외국인진료(영어, 스페인어), 가정의학, 노인의학, 여행의학	유병욱	(토)	목
		가정의학과 질환	전공의	월, (토)	화, 수, 금	
외국인진료소 9158		International Health care Center	Dr. Hong, Sung-ho		월, 수	
		International Health care Center	Dr. Yoo, Byung-wook	월, 화, 수, 목, 금, 토	화, 목, 금	
신경외과 9268 · 9257	선택	뇌혈관질환, 뇌종양, 두개기저술, 편측안면경련, 두부외상, 말초신경질환	조성진	월, 목, (토)	월, 목	
		척추 및 척수질환, 말초신경, 두부외상	장재실	월, 수, 금, (토)	월, 금	
		뇌혈관질환(뇌동맥류, 뇌경색)중재 및 수술, 뇌종양(화학요법, 사이버나이프)	박석규	화, 수, 금	화	
	일반	척추질환, 뇌경위,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통증	박형기	해외 연수		
		뇌혈관질환, 뇌종양	최순관		월, 수, 금	
신경과 9268 · 9267	선택	뇌졸중, 두통, 경련성 질환(간질), 파킨슨 병	안무영	화, 목	화, 목	
		말초신경질환 및 근육질환, 척수질환,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치매	노학재	월, 금	월, 수	
일반	뇌졸중, 두통, 치매	이경복	수, (토)	월, 금		
	일반 신경과 질환	전공의	(토)	금		
총부외과 9276	선택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흉곽기형	염욱	월, 수, 금	월, 수, 금	
		폐암, 폐결핵, 폐기종 등 흉강경수술, 흉선종 등 종격동종양, 기도질환, 식도암	김현조	화, 목	화, 금	
일반	성인심장질환, 대동맥질환, 경피적체외순환 보조, 중환자관리, 흉강경, 하지정맥류	장원호	토	수, 목		
성형외과 9283	선택	두경부재건, 미세혈관수술, 선천성기형, 미용성형, 수부외과 전문의	탁민성	화, 목	화	
		유방재건, 하지재건, 미용성형	강상규	수, 금	월, 금	
	일반	수부외과, 악안면외상, 미용성형, 수부외과 전문의	김철한	월, (토)	수, 목	
신부인과 9320 · 9329	선택	여성생식기의학(피임, 폐경, 불임, 청소년상담), 선택분만, 산과 및 부인과 수술	이임순	월, 수	월, 수	
		모체태아의학,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수술, 복강경수술	이정재	화, 목	화, 목	
		모성태아의학(고위험임신, 예비임산부, 태자기형), 산전상담, 일반산부인과 수술	최규연	화, 금	화, 금	
일반	부인 종양학, 복강경 부인암 수술	김미경	수, 목	수, 목		
	부인과 종양학, 최소침습수술(복강경 근종 절제술)	차상현	월, 토	월, 수, 금		
	산과, 부인과 질환	전공의	화, 수, 금	화, 수, 금, 토		
소아청소년과 9338 · 9147	선택	소아내분비질환, 유전성대사이상, 의학유전학	이동환	수	월, 화, 금	
		소아 알레르기질환, 소아 호흡기질환	편백양	월, 금	월, 수	
		소아 신경계질환, 발달장애, 두통	서은숙	월, 목	수, 금	
	일반	미숙아, 고위험 신생아, 신생아질환	이우령	화, 수, 금(신생아)	목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양현중	해외 연수		
일반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과 질환	진창용	화, 목, 금, 토	화		
일반	소아청소년과 질환	전공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육아지도	육아지도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안과 9354 · 9355	선택	사시, 소아안과, 안성형, 백내장	박성희	수, 금, (토)	수, 금	
		망막, 유리체 및 포도막, 백내장, 안내렌즈	이상진	월, (토)	월, 목	
		망막, 유리체 및 포도막, 백내장	최경식	화, 목, (토)	화	
	일반	녹내장, 백내장, 각막	하승주	월, 수	월, 수	
		일반 안과질환, 콘택트렌즈	전공의	화, 목, 금, 토	화, 목, 금	
이비인후과 9360	선택	두경부외과(후두암, 종양, 선목소리)	장혁순	화, 금	월, 목	
		이과(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달팽이관 질환))	이병돈	월, 목	수, 금	
일반	비과(비염, 축농증, 코종양), 두경부학(갑상선 종양)	김동욱	월, 수, 토	화		
	비염, 축농증, 코종양	전공의	화, 목, 금	월, 수, 목, 금		
피부과 9368	일반	알레르기 피부질환, 레이저치료	황규왕	월, 수, 금	월, 수, 금	
		피부미용, 레이저치료	조문균	화, 목	화, 목	
		피부과 질환	전공의	월, 수, 금, 토	월, 화, 수, 목, 금	
비뇨기과 9375	선택	종양, 전립선,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송윤섭	월, 수	월, 수	
		비뇨기암, 복강경,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배뇨장애, 요로감염	양원재	화, 목	화, 목	
일반	일반 비뇨기과 질환	두승환	금, 토	금		
	일반 비뇨기과 질환	전공의	화, 목	월, 수		
치과 9464	일반	보철과, 치주과, 턱관절장애	김은주	월, 화, 목, 금, 토	월, 화, 목, 금	
		치아교정, 투명교정	박미애	월, 화, 목	월, 화, 목	
		외과 및 심미교정	이두희	월		
보철과(심미치료, 특수의치)	강경희	월, 수, 목	월, 수, 목			
재활의학과 9260	선택	근골격계질환, 스포츠의학, 통증재활, 전기진단, 족부질환	이양균	월, 화, 목, 금	수	
	일반	척추손상 및 뇌질환 재활, 근골격계통증, 언어장애, 전기진단	박지용	수	월, 목, 금	
방사선 종양학과 9411	일반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치료	전공의	토	화	
신경통증센터 9299	선택	급만성 통증관리	장아람	수, 금	월, 수, 금	
	일반	급만성 통증관리	김상호	월, 수, 금, (토)	월, 수, 금	
응급 9117 · 9118	일반	응급질환, 소생의학, 독성학	박선영	화, 목, (토)	화, 목	
		응급질환, 소생의학, 응급영상학	장혜영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응급의학	조영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응급의학과	전공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 상기 일정은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OMMUNICATION Schedule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진료 일정표

토요 진료 정상 운영 | 토요일은 표기되어 있는 토요일 진료 교수들이 교대로 진료합니다.

진료과	구분	주요 진료 분야	진료 교수	진료일	
				오전	오후
소화기내과 2137 · 2810	선택	위장관질환, 식도질환, 치료내시경 헬장 · 담도질환, 담석증, 헬담도 치료내시경 간질환, 간종양 위장관질환, 식도질환, 치료내시경 위장관질환, 소화기관 운동성질환, 치료내시경 위장관질환, 소장 및 대장 질환, 치료내시경 간질환, 간종양 헬장 · 담도질환, 담석증, 헬담도 치료내시경	김선주	월, 화, 목	
			박상훈	금	월, 수
			김홍수	금	월, 수, 목
			정일권	수	월, 화, 금
			이석호	화, 수, 목	
			이창균	목, 금	화
심장내과 2820	선택	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심장질환, 부정맥, 고지혈증, 심장검프	진동규	월, 화, 수, 목	
			신원용	월, 화	화, 목
			이승진	수, 금	월, 수
			박상호	목, 토(격주)	월, 수
			이세환	금	화, 목, 금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812 · 2192	선택	알레르기, 급만성기침 · 호흡곤란증, 폐렴, 폐암, 간질성폐질환, 폐결핵, 늑막질환 기관지확장증, 알레르기클리닉	김용훈	월, 화, 목, 금	
			서기현	수, 금	화, 목
			나주옥	화, 목	월, 수
	일반		최재성	월, 토	화, 수, 금(격주)
			이호성	수, 토	월, 목, 금(격주)
신장내과 2100 · 2120	선택	신장이식, 급 · 만성 신부전증, 혈액박막투석, 고혈압, 약물중독 ※ 농약중독치료연구소	홍세용	월, 화, 목	목
			이은영	월, 화, 금	수
			양종오	수, 목, 토(격주)	월, 화, 목
			길효욱	수, 금, 토(격주)	월, 수, 금
중앙혈액내과 2187	선택	각종 암, 빈혈, 백혈병 등 혈액질환의 전문 항암제 치료, 표적치료	이규택	화, 목, 금	금
	일반		배상병	수	월, 수, 목
내분비대사내과 2187	선택	당뇨병, 갑상선질환, 노화, 당뇨교실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김상진	화, 목, 금	월, 목
			김여주	월, 수	화, 금
			전성완	화, 금	수
감염내과 2810	선택	바이러스 감염, 쯤쯤기루시, 각종 열성질환, 결핵, 성병, 에이즈, 해외여행클리닉	전민혁	월, 화, 목	
류마티스내과 2811	선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섬유조직염, 통풍성 관절염, 소아관절염	나성수	수, 금	월, 수
신경과 2290	선택	간질 및 실신, 중풍(뇌졸중), 치매, 어지럼증 간질 및 수면장애, 다리저림, 어지럼증 중풍, 신경통(말초신경병), 치매, 두통	박형국	월, 수, 목	수, 목
			양광익	월, 화, 목, 금(수면)	월(수면)
			정두신	수, 목, 금	화, 금
	일반	뇌졸중, 두통, 치매	오형근	유학('10.09~'11.08)	
외과 2140 · 2840	선택	소아외과, 위암, 신장이식 간, 담도, 췌장계질환, 복강경클리닉 위암, 위장관외과, 위암클리닉 하부 소화기질환, 대장암, 직장암, 대장암클리닉 유방암, 내분비내과, 유방암 및 갑상선암클리닉 탈장, 복강경 복강경수술, 혈관, 양성형문질환 유방암	조우식	화, 목	
			김창호	월	목
			이문수	금	화
			백우준	수	월
			김성용	화, 목	목
			강길호		월, 수
			배상호		수, 금
			한선욱	수, 토	
			김영창	월, 목	수, 금
			박준수	화, 목, 금, 토	월
소아청소년과 2160 · 2169	일반	소아신경학(소아간질, 두통, 발달장애) 소아천식, 소아알레르기 클리닉 신생아학,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소아혈액학, 중앙 소아신장학 소아심장학, 심장초음파, 소화기학	김영창	월, 목	수, 금
			박준수	화, 목, 금, 토	월
			오영호	월, 화, 목, 금, 토	
			박경배	화, 금, 토	월, 수
			유경희	월, 토	화, 목
			김승수	수, 토	월, 화, 목, 금
산부인과 2150 · 2750	선택	부인종양 및 부인비뇨기학, 부인종양클리닉 폐경기치료, 부인비뇨기학, 폐경클리닉, 고위험임신	배동한	월, 수, 금	월
			전우재근	월, 수, 목, 금	월, 수, 금

산부인과	선택	부인과 내분비 질환, 불임 일반부인과, 골반내시경, 부인종양클리닉 산과 및 산과초음파, 유전학, 모성태아의학, 고위험임신, 일반부인과	최승도	화, 목	화, 목						
			전섭	화, 금	월, 수						
			김윤수	월, 수	화, 금						
일반	복강경클리닉, 산과학,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문성택	토	수, 목, 금							
뇌신경외과 2180	선택	뇌혈관질환(뇌졸중수술), 뇌종양, 간질수술, 두부외상	윤일규	월, 목, 토	수						
			배해근	화, 수, 금, 토	월						
			윤석만	토	화, 목, 금						
척추신경외과 2180	선택	척추(척추디스크)질환, 척수질환, 척추신경 · 말초신경질환, 척추외상	이경석	월, 수, 금, 토							
			도재원	화, 목, 토	월, 금						
일반		심재준	토	화, 수, 목							
정형외과 2170 · 2770	선택	고관절질환, 인공관절성형술 수부질환, 팔목질환, 미세재건수술 어깨, 팔꿈치, 채골 질환 및 외상, 어깨 및 무릎 관절경 수술	박종석	수, 금	월						
			이상선	화, 목, 토	화, 목						
	일반	척추질환 스포츠손상, 관절경 수술	김준범	월, 수, 토	수, 금						
			홍창화	유학('10.08~'11.07)							
흉부외과 2190	일반	기흉클리닉, 폐수술 폐 식도질환, 심장혈관질환, 흉강경수술, 정맥류클리닉, 새기슴클리닉, 세미로봇수술, 다한증클리닉	이철세	월, 목	월, 목						
			이석열	화, 금, 토	화						
성형외과 2195	선택	두경부 종양, 두경부 재건, 선천성 기형, 미용 성형 미세수술, 재건성형, 악안면기형, 지방흡입술 안면 외상 및 재건술, 미세수술 및 수부재건술, 유방 미용수술 및 재건술, 선천성기형, 화상	이영만	화, 목	화						
			김준혁	월, 수, 금	월						
안과 2260	선택	사시, 소아안과, 안성형, 신경안과, 보톡스, 사시클리닉, 백내장 각막, 외안부, 백내장, 드림렌즈, 콘택트렌즈, 각막이식클리닉	최환준	월, 토(격주)	월, 수, 금						
			남두현	화, 금, 토(격주)	화, 목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2265 · 2765	선택	비과(축농증, 비성형, 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이과(중이염, 소아중이염, 난청, 이명, 안면마비), 인공와우이식 이과(중이염, 소아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인공와우이식	백병준	화, 금	월, 목						
			이지규	월, 수, 금	화						
피부과 2270	일반	여드름, 대상포진, 건선, 백반증,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및 습진성 질환 건선, 여드름, 소아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염	이종석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이성열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목						
비뇨기과 2275	선택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 비뇨기 종양, 전립선 질환 내비뇨 및 복강경, 비뇨기종양 비뇨기종양, 배뇨장애, 전립선	이남규	월, 목	화						
			전윤수	수, 목	월						
			이창호	화	화, 수						
일반	소아 · 남성비뇨생식기 질환, 요로결석	김두상	월, 금	목, 금							
신경정신과 2280	선택	기분장애,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기분장애, 노인정신의학, 성기능장애	정희연	월, 목	월, 목						
			권영준	화, 금, 토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3550	선택	유방암, 직장암, 소화기암, 부인암, 비뇨기암	김은석	화, 목, 금	월, 화, 목						
			여승규	월, 수	수, 금						
재활의학과 2220	일반	류마티스관절 재활, 뇌신경 · 족부 재활, 미숙아발달검사, 소아청소년재활	김수아	화, 목, 금, 토	월, 수						
			오기영	월, 수, 토	월, 목						
가정의학과 2238	선택	건강증진, 생활습관병 관리, 건강검진이상 소견 관리, 비만, 금연 급만성질환, VIP속박정밀건강진단	오정은	화, 수, 금, 토	월, 목(비만)						
			조용진	월, 목, 토	화, 금						
통증클리닉 2184	선택	신경차단술 기초의 치료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질환 치료	유시현	월, 목	월, 수, 목						
			정지원	화, 수, 금	화, 금						
치과 2146	일반	임플란트 클리닉, 치아미백 클리닉, 특수틀니 클리닉 치아미백 클리닉, 심미치과 클리닉, 특수틀니 클리닉	성한모	월, 화, 수, 목, 금, 토(격주)	월, 화, 수, 목, 금						
			김규규	월, 화, 수, 목, 금, 토(격주)	월, 화, 수, 목, 금						
응급의학과 2119	일반	외상, 기타 응급질환	김재우	영상의학과 3500 · 3515	선택	복부방사선학	김일영	병리과	선택	소화기병리, 심폐병리, 소아병리	오미혜
			박세훈	신경방사선학	배원경	3580	분자병리, 림프관내병리, 소화기병리	조현득			
마취통증의학과 2721	선택	노인마취, 정맥마취 산과마취, 통증치료, 근이완 통증치료, 산과마취 노인마취, 통증치료 산과마취, 심폐혈관마취, 소아마취	안기량	일반	복부방사선학, 유방영상학	김형철	2081	산업의학과	일반	특수건강진단, 직업병관리, 보건교육	이지혜
			김천숙	일반	복부방사선학, 핵의학, 소아방사선학	김형통	2081	보건의관리대학, 직업병관리	이용진		
			강규식	일반	근골격계방사선학	한종규	2081	특수건강진단, 직업병관리	장은철		
			유시현	일반	복부방사선학, 심장방사선학	조성식	3560	진단검사의학과	일반	혈액학, 생화학	김휘준
정지원	일반	통증치료, 외과마취, 두경부마취	정지원	3560	선택	미생물, 혈액연행	최영진				

\* 상기 일정은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료과	주요 진료 분야	진료 교수	특진	진료일	
				오전	오후
내과	소화기내과(급만성간질환, 간암, 소화기질환 진단 및 치료내시경)	이태일	●	월,수,금,(토)	화,목
	소화기내과(소화기암, 소장 및 대장질환, 치료내시경-대장용종, 대장암)	김완중		월,수,금,(토)	화,목
	소화기내과(간질환, 췌장/담도질환, 위장관질환 진단 및 치료내시경)	구현철		화,목,(토)	월,수,금
	소화기내과(식도 및 위암, 위궤양, 위염, 위식도역류 진단 및 치료내시경)	박윤선		화,목,(토)	월,수,금
	심장내과(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심장질환, 중재시술)	김도희		월,화,수,목,금,(토)	
	호흡기내과(천식, 만성기도질환, 폐렴 결핵 등)	임건일		월,화,수,금,(토)	월,목
	호흡기내과(천식, 만성폐질환, 폐암, 폐렴, 결핵 등)	황현규		월,화,목,(토)	화,수,금
	호흡기내과(천식, 만성폐질환, 폐암, 폐렴, 결핵 등)	정은정		수,목,금,(토)	월,화,금
	신장내과(급성·만성신부전, 단백뇨·혈뇨·요로감염의 관리와 치료)	김태우		월,수,목,금,(토)	월,화,수
	신장내과(급성·만성신부전, 단백뇨·혈뇨·요로감염의 관리와 치료)	김나리		월,화,수,목,(토)	월,목,금
내분비내과(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이주영		월,화,수,목,금,(토)	월,수	
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박래경	●	월,목,금,(토)	월,수
	위암·간담도·췌장수술, 탈장, 복강경수술, 비만수술	김형수		월,화,수,(토)	월,목
	유방질환, 갑상선, 복강경수술	이진형		화,목,(토)	화,금
소아청소년과	심장질환(소아심장초음파), 신장질환, 사춘기질환	김춘동	●	월,수,금,(토)	화
	소아위장관질환, 신생아질환, 소아감염	이희경	●	월,화,수,목,(토)	수,금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질환	노재호		월,수,금,(토)	월,화,목
	신생아·미숙아클리닉, 신생아발달, 아동학대	박일성		수,금,(토)	월,화,목
	소아내분비, 소아비만, 성장클리닉	이종현		월,화,목,(금)(토)	월,수,금
소아신경, 경련성질환	김성수		화,목,(금)(토)	월,수,목,금	
산부인과	일반산부인과질환	한효상		화,목,(토)	화,목,금
	폐경기, 내분비질환, 고위험임신, 성폭력 및 학대아동	황인철		월,수,금,(토)	월,수
	복강경, 일반부인과질환	유지훈		월,수,금,(토)	월,수
	갱년기질환, 복강경	최정범		화,목,(토)	화,목,금
정신과	수면장애, 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 집중력장애, 우울증, 환병, 치매	류석환		월,화,수,목,금,(토)	월,금
신경과	뇌졸중, 치매, 손발저림증, 두통, 어지럼증, 경련	정재훈	●	월,화,목,금,(토)	화
	두통, 어지럼증, 뇌졸중, 파킨슨, 치매	배준석		월,화,수,금,(토)	월
	두통, 어지럼증, 뇌경색, 치매, 손발저림증	안병준		수,목,(토)	월,수,목,금
	뇌졸중, 치매, 두통, 경련성질환	황승열		(토)	화,수,목,금
신경외과	척추질환(미세침습적수술), 뇌혈관질환, 만성통증	김라선	●	월,수,목,(토)	월,목
	뇌혈관질환(혈관내수술), 소아신경외과학, 척추질환	김성호		화,금,(토)	화,수,금
흉부외과	심장관련질환, 혈관질환, 폐·식도질환, 일반흉부질환	이재욱		월,수,금,(토)	월,수
	외상, 일반흉부질환,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백강석		화,목,(토)	화,목,금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슬관절), 고관절질환 및 외상, 류마티스관절염, 골다공증	박준용	●	월,화,목,(토)	월,목
	척추외상 및 척추질환, 일반근골격계 외상 및 질환, 어깨관절질환 및 관절경	차주석		화,금,(토)	화,금
	일반근골격계 외상 및 질환	지정우		월,수,금,(토)	월,수

성형외과	레이저, 미용성형 미세수부 및 재건, 유방성형 및 재건, 화상	최창용		수,금,(토)	월,(수)
	급성안면손상, 급성수부손상, 피부레이저미용, 미용성형	양형은		월,목,(토)	(수),목
	레이저클리닉, 미용성형, 미세수술클리닉, 안면외상클리닉	이형교		화,(토)	화,(수),금
안과	백내장, 녹내장, 사시, 외안부, 안성형, 망막, 콘택트렌즈	박상혁		월,목,(토)	월,수,목
	백내장, 녹내장, 사시, 외안부, 안성형, 망막, 콘택트렌즈	선해정		화,수,금,(토)	화,금
이비인후과	중이염, 난청, 두경부종양 및 암, 축농증, 각종 코질환	오천환	●	월,목	
	성인코골이, 소아이비인후과, 두경부종양, 부비동염(축농증)	박재홍		화,(토)	월,수,금
	두경부질환, 비과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전수성		수,금,(토)	화,목
비뇨기과	비뇨기계종양, 요석, 전립선,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성기능 장애	윤종현		월,수,목,(토)	월,목,금
	배뇨장애, 소아비뇨기질환, 요로감염, 요석, 전립선	유용덕		월,화,금,(토)	월,화,수
피부과	피부질환, 건선, 탈모, 알러지, 대상포진	윤종현		월,수,목,(토)	월,목,금
	피부질환	유용덕		월,화,금,(토)	월,화,수
가정의학과	성인병 및 주요암검진, 종합검진, 근거중심의 일차진료	신경숙			월,화,수,목
마취통증의학과	만성통증, 암통증, 요통, 수술후 통증치료	배상철	●	매일	
	만성통증, 암통증, 요통	이동기	●	매일	
	심폐마취, 소아마취, 만성통증	전인숙		매일	
영상의학과	유방·근골격계 영상의학	임한혁	●	매일	
	뇌·신경계, 두경부 영상의학	이상진	●	매일	
	복부 영상의학	최교창		매일	
	중재적시술, 비노생식기계 영상의학	양승부		매일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미생물	안지영		매일	
병리과	세포병리, 조직병리	김숙		매일	
응급의학과	환경응급의학, 대량재해, 외상응급의학, 전문심장구조학	유병대		매일	
	독극물학, 환경응급의학, 외상응급의학, 대량재해, 전문심장구조학	이명갑		매일	
	독극물학, 환경응급의학, 스포츠손상, 외상응급의학, 전문심장구조학	전덕호		매일	
산업의학과	산업보건관리	우극현		매일	
	보건관리대학, 직업병진료	김진석		매일	
	특수검진, 보건관리, 직업병진료	유재영		매일	
	근골격계질환관리, 특수검진, 직업환경관리	윤성용		매일	
치과	인공치아매식술(임플란트), 난발치, 심미-보철치료, 보존치료	박선엽		매일	

\* 상기 일정은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번의 검사로  
전신의 암을  
찾아냅니다!

최첨단 PET-CT가동

! 진단가능질환 | 종양(각종 암),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검사에약 및 문의.054)468-9370

최첨단 의료로 거듭나는 구미의 중심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최첨단 PET-CT가동

! 진단가능질환 | 종양(각종 암),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검사에약 및 문의.054)468-9370



SCH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COMMUNICATION Schedul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진료 일정표

진료과	구분	주요 진료 분야	진료 교수	진료일			
				오전	오후		
소화기내과	일반	급만성 바이러스성 간염(B형, C형)의 진단과 치료, 간암의 진단과 치료	김부성	월, 금			
		위·식도 및 간질환, 대장 항문병, 소화기암 치료, 진단 및 치료 내시경, 소장질환 진단 및 치료	이문성	월, 화, 목, 금			
		헬장·담도 질환, 진단 및 치료내시경, 소화기 질환	문종호	화, 수	목		
		간염,간경변증,지방간 및 지방간염 진단 및 치료내시경, 소화기질환, 간암의 진단 및 치료	김영식	화, 목	화, 수		
		위·식도 질환, 소장, 소장 항문병, 소화기암 치료, 진단 및 치료내시경	유창범	수	월, 목		
		식도·위 질환 및 치료 내시경, 기능성 위장질환	홍수진	금	화, 수		
	일반	식도, 위, 대장, 소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소화기질환(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등) 진단 및 치료	고병민	해외연수(2010.02~2011.02)			
		바이러스간염, 간경변 및 간암의 진단과 치료, 위장관질환의 진단과 치료	김상근	수	목, 금		
		헬장 및 담도질환, 진단 및 치료내시경, 소화기질환	최현중	월, 목	금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이종찬	수	목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배준호		월, 수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민술기	화	금		
	일반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김화중		월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김홍일	금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한승효	토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변진영	토			
소화기질환의 진단 및 치료		유희용	토				
소화기 질환		한재필		화			
심장내과	선택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안형수		월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이내희	목	월, 화, 목		
		고혈압, 말초동맥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조윤행	수, 금	화, 수		
		심초음파, 심부전, 고혈압, 판막질환, 폐동맥 고혈압	서혜선	월, 수, 금, 토	월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서준	월, 화, 목, 토	금		
		심근지 전식, 미안성 간질성 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박춘식	월, 수, 금	월		
	선택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근·관성 폐질환, 면역질환, 중환자관리	장안수	월, 수	수, 금		
		호흡부전, 중환자의학,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폐암, 만성기관지, 천식	김도진	화, 목, 토	월, 화, 목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성 간질성 폐질환, 폐결핵, 폐암	박성우	월, 수	월, 목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질환, 폐결핵, 폐암, 중환자의학	이준혁	화, 목, 금	화, 수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질환, 폐결핵, 근·관성 폐질환	박종숙	화, 금	수, 금		
신장내과	선택	신아식,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홍승덕	월, 수, 금	월, 수		
		투석과 영양상태,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김진국	화, 목, 토	화, 목		
		투석, 사구체 신염, 요로감염, 일반 신질환	박우용	월, 수, 토	월, 금		
		혈액투석의 활관 합병증, 복막투석과 영양 상태, 만성 콩팥병	최수정	화, 목, 토	화, 목		
	일반	일반신장학, 만성신부전, 요로감염	김은정	금	수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일반신장질환	정철호	월, 토	금		
		내분비내과	비선택	내분비(대사학)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비만)	강성구	월·화·목	목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부신, 뇌하수체 질환	김철희	월·화·목·금	수
선택	당뇨병, 비만,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고지혈증		김지효	수·금	월·화·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정찬희	수·목·토	월·금		
중양혈액내과	비선택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부신, 뇌하수체 질환, 고지혈증	김보연	월·토	화·목·금		
		선택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부인과학 및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의 악성 혈액 질환, 조혈모세포 이식	홍대식	월·수·목	금	
	일반	일반고혈압 및 백혈병 등의 악성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박상규	화·금	월·화		
		비선택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흉선암, 육종, 악성흑색종, 조혈모세포이식	김찬규	해외연수(2010.05~2011.05)		
신 택	위암, 대장암, 간담낭암, 신장암, 방광암, 유방암, 부인과학	김현정	화·목·토	월·화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기타 혈액질환,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 흉선암 등 고혈압	김세형	월·금·토	수			
일반	일반 고혈압 및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의 악성혈액질환	윤진아	수·토	목·금			
	갑염내과	선택	갑염병, 원인불명성, 성인예방접종, 해외여행자/유학생 진료, 에이즈(AIDS)	추은주	화, 목	월, 목, 금	
류마티스내과		일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감각성척추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혈관염, 백색트병	전찬홍	월, 수, 금	화, 수	
신경과	선택	신경안과학(복시), 신경이과학(아지럼증)	성기범				
		신경이과학(아지럼증), 두통, 뇌혈관질환, 자율신경계 이상	이태경	월, 화, 목, 금	화		
		치매, 퇴행성뇌질환, 간질, 뇌혈관질환	박신아	화, 수, 금	월, 화		
		운동장애, 뇌졸중, 두통	박정호	월, 수, 토	수, 목, 금		
		신경안과학(복시), 신경이과학(아지럼증), 자율신경계 이상	박지윤	월, 목	월, 수, 목		
		뇌졸중, 뇌혈관질환, 치매	윤영훈	화, 금, 토	화, 금		
	일반	신경안과학(복시), 신경이과학(아지럼증)	일민희	토			
		정신의학, 정신약물학, 노인정신의학	정한용	화, 목	월, 화, 목		
		소아청소년 정신과 질환(주의력, 학습, 언어, 인지, 발달, 스트레스, 정서, 사회적, 행동, 틱 등)	이소영	월, 수, 금	월, 수		
		치매 및 기억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정신분열병, 알코올중독	김산림	월, 수, 금, 토	수, 금		
외과	선택	대장항문외과, 유방외과, 내분비외과, 신장이식	송옥령	월, 수			
		담석증 및 담도질환, 간염, 췌장암, 상부위장관질환, 복강경수술,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식외과(신장이식, 간이식)	김형철	월, 목			
	일반	유방학, 내분비외과	임철완	화	화, 목		
		대장항문과, 대장암, 직장암 수술, 복강경 수술	신용진	화, 금			
일반	위암, 비만-대사 복강경수술, 상부위장관 질환	조규석		수, 금			
	담석증 및 담도질환, 췌장암, 탈장 및 복강경수술, 임상종양학	정준철	목	월			
	복강경 수술, 임상종양학	정규애	금, 토	화			
	일반 외과, 대장항문 외과	성종세	토	수, 금			
일반	장기이식(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간암 및 간내 양성 종양, 육종 및 후복막 종양	최규성	월	목			
	일반 외과, 대장항문 외과	김영환	수, 토				
	정형외과	선택	척추디스크, 척추 기형, 척추 외상, 퇴행성 척추 질환	김중하	화, 목	화	
			관절염, 인공관절(술관절, 고관절), 골다공증	임수재	월	월, 목	
스포츠의학 및 관절염, 관절질환(술관절, 견관절)			김경대	화·수·금			
수부외과, 미세수술 외과			김병성	월, 수	수		
족부, 족관절, 당뇨발, 외상			이영구	목, 토	화, 목		
일반			술관절, 고관절, 외상	이상혁	토	월, 금	
재활의학과		선택	뇌졸중, 척추손상, 요통, 견관절통 및 관절염, 근전도 검사	서현	월, 화, 수, 금	화	
			일반	족부외과, 소아 및 청소년 하지교정, 노화방지, 만성통증, 뇌졸중 재활	김상현	목	월, 수, 목, 금
		신경외과	선택	척추질환(허리, 목, 디스크, 척추증양), 현미경적 미세 디스크 수술, 두부외상, 척추외상	신원현	월, 수, 금	
				뇌졸중, 두통(頭痛), 뇌혈관내수술, 안면경련/마비, 뇌종양, 두부외상	김병태	월, 화, 수, 목	
				척추질환(목, 허리디스크), 척추손상, 척추증양, 말초신경질환, 손저림증, 두부손상	임수빈	화, 목	월, 목
				뇌종양, 내시경수술, 뇌하수체종양, 뇌혈관질환, 간질	황성철	해외 연수(2010.09~2011.08)	
일반	뇌 질환 및 척추 질환, 두부외상, 척추외상			박관용	월, 화, 수, 금		
뇌질환 및 척추질환, 두부외상, 척추외상	신동성			토			
흉부외과	선택	심장외과, 흉관외과, 기관식도외과	원용순	월, 금	월		
		폐암 및 흉부종양외과, 흉간내시경수술, 정맥류	신화균	화, 목	화		
		흉부외상, 심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하규	수, 토	수, 금		
		일반	양진성	토	목		
		성형외과	선택	선천성 안면기형(구개열, 안천막, 두개골 조기유합증), 미용(눈, 코, 유방, 보톡스, 주름성형, 안면윤곽), 인공치수 및 노인성 안검, 귀 재건수술, 턱관절	김용배	화, 목	목
				손 및 손목질환, 미용(바늘개 수술법 쌍꺼풀, 자가 연골 이용한 코윤곽수술, 얼굴 주름 제거 수술), 액취증, 합지증, 다지증, 손 저림증, 피부 및 연부조직 종양	정승규	수, 금	월, 수
미용(눈, 코성형, 유방, 흉부, 주름, 지방성형), 안면윤곽, 안면윤곽성형, 피부암, 이허선종양, 레이저, 모발이식(역취증, 제모), 유방재건, 수부외과, 화상	백은수			해외 연수(2010.09~2011.08)			
사각턱, 돌출입, 화상반흔재건, 액취증, 코골 및 휘어진 코성형, 지방흡입술, 매몰눈성형, 두경부재건	신호성			월, 수, 토	월, 수, 목, 금		
일반	미용성형, 재건성형, 두개안면기형 및 외상, 수부			남승민	화, 토	화, 목	
일반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일반	산과학(주산기학)	이근혜	화, 수			
		선택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질외음부암, 용모성암)	남계현	화, 목	화, 목	
	일반	배경, 무월경, 자궁근종, 자궁출혈 및 월경이상, 난소종양, 자궁외임신, 자궁내막증	이혜혁	월, 화, 수, 금, 토	월, 수, 목		
		부인암 및 복강경 수술, 자궁내시경수술, 자궁 질 탈출증	김정식	금	수, 금		
		모성태아의학(임신, 분만), 고위험임신(임신손상, 조산, 저체중아), 대태임신(쌍둥이임신, 세쌍둥이 임신과), 태아정밀超音파검사, 태아기형 관리, 미용성 및 미용외과(성형외과)	김태희	목, 토	화, 목		
		일반	부인종양(자궁경부암, 난소암) 검사 및 치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질 및 외음부 질환, 피임클리닉(피임약, 자궁내 장치, 응급피임약), 성폭력 부인과 문제 지원	정수호	월, 토	월	
	소아청소년과	선택	소아감염학, 예방접종, 심장학	김창휘	월, 화, 수, 금	수	
			소아소화기학, 소아영양학	박재욱	화, 목, 금	월, 수	
			소아 혈액종양학, 소아 신장학	서원석	월, 수, 목, 토	화, 금	
			신생아학, 미숙아학	김성진	월, 목, 토	화, 금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폐렴, 만성 기침 등), 소아 신경학	신미은	수, 금, 토	월, 수, 목	
			일반	소아내과(비학, 유전 대사학, 성장 발육지도, 소아신장학)	신영림	화	월,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선택	유방암, 직장암, 소화기암, 부인암, 비뇨기암	김용호	화, 목, 금	화, 목, 금		
	일반	두경부암, 뇌종양, 폐암, 식도암, 혈액암, 수술전후보조방사선치료,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토모테라피(세기분조방사선치료, 영상유도방사선치료, 정위방사선치료/수술), 고질적 통증완화 치료	문성권	월, 수	월, 수		
인과	선택	말막, 유리체질환, 맥내장	윤영훈	월, 수, 금	수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눈물길, 눈물길장애	장지호	해외 연수(2010.01~2010.12)			
		유리체, 망막질환, 녹내장, 맥내장	박대운	화, 목	화, 목		
		각막, 외안부, 맥내장, 굴절교정수술, 콘택트렌즈	김선웅	월, 목	월, 화		
일반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눈물길, 눈물길장애	김소영		수			
	말막, 유리체질환, 맥내장, 녹내장	박주연	수, 토	금			
핵의학과	일반	방사선의의용품을 이용한 핵의학 영상 진단 및 치료	박성미		수, 금		
	이비인후과	선택	축농증내시경수술, 비중격수술, 코기능이상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강 및 부비동 종양	이재윤	화·금	화·금	
음성질환 및 음성언어학, 갑상선암, 두경부암			이승원	월·수·금	월		
중이염, 어지럼증, 난청, 안면마비, 촉두골 종양			이동태	수·금·토	월·수		
두경부종양(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침샘암), 갑상선종양, 소아이비인후과			김재욱	화·토	화·수·금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내시경수술, 비중격수술			김진영	월·목·토	월·목		
난청, 이명, 중이염, 인공와우, 보청기, 소아이비인후과			박무균	월·목·토	화·목		
피부과	선택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건선, 백반증, 탈모증	박영림	월·화·금	화·목		
		알레르기 질환(두드러기, 가려움), 모발 및 두피질환, 백반증, 피부미용(여드름, 색소질환)	이상훈	수·목	월·수·금		
일반	레이저 및 피부미용, 습진성 피부질환, 피부감염증, 소아피부질환, 건선	배유인	수·목·토	월·화·수·목			
비뇨기과	선택	비뇨기계 종양(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전립선 질환, 요로감염	김민희	월·수·금			
		여성 비뇨기과, 배뇨장애, 남성의학, 성기능장애, 남성 갱년기, 전립선질환	김영호	화·목	화·목		
		소아비뇨기질환, 아노증 및 소아배뇨장애, 요로결석, 요로감염	김준모	월·목	월·금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요로감염	이종우	화·수·금	수		
		일반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일반 비뇨기 질환	김재현	토	월·목	
		일반외과	일반외과				
응급의학과	일반	외상학, 중독학, 소화기응급질환, 심폐소생의학	임은	월, 화, 수, 목, 금			
		심폐소생의학, 심혈관계 응급질환, 노인의학, 스포츠의학	김효중		월, 화, 목		
		응급질환, 심폐소생의학, 응급영상의학, 중독학	조영순	월, 수, 금, 토			
		일반	턱관절 치료, 임플란트, 턱 얼굴성형, 두경부 동통, 코골이 및 이갈이 장치	이기철	월, 화, 목, 금	월, 화, 금	
		치아 보존, 근관치료, 재근관치료, 치근단절제수술, 치아 미백술, 전·구치부 심미수술	박성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목		
		구강외과	이종환	월, 화, 수, 목, 토	월, 화, 수, 목		
마취통증의학과	선택	소아, 청소년교정, 성인교정, 수술교정	최주희	금, 토	화, 수, 목, 금		
		산과(마취, 만성통증치료)	김용익	월, 수, 금	월, 수, 금		
		일반	일반마취, 근·관성 통증치료	조성환	목, 토	목	
		급만성 통증 치료, 두경부 수술 마취	이준호	화, 토	화		
유전크리닉	일반	분자유전검사, 유전생화학검사, 화학면역검사	이용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가정의학과	일반	이대희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진료과	구분	주요 진료 분야	진료 교수	진료일	오전	오후	
소화기내과	일반	급만성 바이러스성 간염(B형, C형)의 진단과 치료, 간암의 진단과 치료	김부성	월, 금			
		위·식도 및 간질환, 대장 항문병, 소화기암 치료, 진단 및 치료 내시경, 소장질환 진단 및 치료	이문성	월, 화, 목, 금			
		헬장·담도 질환, 진단 및 치료내시경, 소화기 질환	문종호	화, 수	목		
		간염,간경변증,지방간 및 지방간염 진단 및 치료내시경, 소화기질환, 간암의 진단 및 치료	김영식	화, 목	화, 수		
		위·식도 질환, 소장, 소장 항문병, 소화기암 치료, 진단 및 치료내시경	유창범	수	월, 목		
		식도·위 질환 및 치료 내시경, 기능성 위장질환	홍수진	금	화, 수		
	일반	식도, 위, 대장, 소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소화기질환(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등) 진단 및 치료	고병민	해외연수(2010.02~2011.02)			
		바이러스간염, 간경변 및 간암의 진단과 치료, 위장관질환의 진단과 치료	김상근	수	목, 금		
		헬장 및 담도질환, 진단 및 치료내시경, 소화기질환	최현중	월, 목	금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이종찬	수	목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배준호		월, 수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민술기	화	금		
	심장내과	선택	식도·위·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안형수		월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이내희	목	월, 화, 목	
			고혈압, 말초동맥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조윤행	수, 금	화, 수	
			심초음파, 심부전, 고혈압, 판막질환, 폐동맥 고혈압	서혜선	월, 수, 금, 토	월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서준	월, 화, 목, 토	금		
심근지 전식, 미안성 간질성 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박춘식	월, 수, 금	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선택	기관지 천식, 미안성 간질성 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박춘식	월, 수, 금	월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근·관성 폐질환, 면역질환, 중환자관리	장안수	월, 수	수, 금		
		호흡부전, 중환자의학,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폐암, 만성기관지, 천식	김도진	화, 목, 토	월, 화, 목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성 간질성 폐질환, 폐결핵, 폐암	박성우	월, 수	월, 목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질환, 폐결핵, 폐암, 중환자의학	이준혁	화, 목, 금	화, 수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질환, 폐결핵, 근·관성 폐질환	박종숙	화, 금	수, 금		
		신장내과	선택	신아식,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홍승덕	월, 수, 금	월, 수
				투석과 영양상태,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김진국	화, 목, 토	화, 목
투석, 사구체 신염, 요로감염, 일반 신질환	박우용			월, 수, 토	월, 금		
혈액투석의 활관 합병증, 복막투석과 영양 상태, 만성 콩팥병	최수정			화, 목, 토	화, 목		
일반	일반신장학, 만성신부전, 요로감염		김은정	금	수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일반신장질환		정철호	월, 토	금		
	내분비내과		비선택	내분비(대사학)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비만)	강성구	월·화·목	목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부신, 뇌하수체 질환	김철희	월·화·목·금	수
선택		당뇨병, 비만,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고지혈증	김지효	수·금	월·화·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정찬희	수·목·토	월·금		
중양혈액내과	비선택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부신, 뇌하수체 질환, 고지혈증	김보연	월·토			

## 감사 편지

### 이성진 교수님께!

오랜만에 안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여전히 에너지 넘치고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병원이 아니라 친정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른 병원에 다녔는데 이성진 교수님을 보면 모두 다 순천향으로 옮기고 싶은 정도입니다.  
환자와 검사 종류가 많고, 기다림에 지친 환자들의 불평도 많을 텐데 일일이 차별하게 응대해 주시며 흐트러지지 않는 미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을 보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앞서가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의 노후함으로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의뢰진과 여러 직원의 미소와 친절, 실력은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늘 발전하시길 바라며, 이성진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 서민 -

### 신광성 실장님께!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재활, 물리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를 웃게 해주시고, 열정적인 치료를 해주셨으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베품의 마음에 매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길고 험하게 느껴지는 재활의 시간에 열심히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힘을 냅니다.  
퇴원을 해서도 빠른 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박은영 -

### 본관 5병동 간호사님께!

입원해 있는 동안 순천향대학교병원이 지향하는 인간 존중의 mind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 응대를 하면서 친근감 있고, 애정을 바탕으로 한 '나이팅게일'의 소명감을 지니고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에 간호사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관 5병동의 간호사님들께서는 항상 먼저 인사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셨고 무엇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시키며,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짜증을 내도 차별하게 수용하고 환자를 이해시켜서 불편을 최소화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간호사님들 모두에게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순영 -

# 순·천·향·대·학·교 대학교육의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사교육 시장에서 방향하지 않은 젊은 인재를 만나고 싶습니다.  
긍정의 변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입니다.



2011 학년도  
정시(나군, 다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 원서 접수
  - 인터넷 : 2010. 12. 18(토) 10:00 ~ 12. 23(목) 17:00
  - 방 문 : 2010. 12. 22(수) 09:00 ~ 17:00
- 실 기 고 사
  - 2011. 1. 21(금) :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 2011. 1. 22(토) : 영화애니메이션전공
  - 2011. 1. 22(토) ~ 1. 23(일) : 연극무용전공
- 합격자발표 : 2011. 1. 28(금)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sch.ac.kr>)
- 문 의 처 :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대학교 입학처  
Tel : 041) 530 - 3000, 1133, 4751 / Fax : 041) 530-1488  
E-mail : ipsi@sch.ac.kr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의약바이오분야 선정
- 'SC!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센터' 선정
-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원 대학
- 2009 중앙일보 대학평가 30위, 교수확보율 1위, 학생총원율 1위
- 2010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 평가 30위
- 코레일 1호선 전철 순천향대역 개통, 고속전철 '누리로' 운행

첨단 의약바이오 분야의 메카

전국 4개 병원이  
1등 품격으로  
대한민국을  
진료합니다

#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은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구미병원

[www.schmc.ac.kr](http://www.schmc.ac.kr)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SCH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SCH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SCH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SCH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